진리
평화
창조

외대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1958년 3월 27일 제3종 우편물(가)급인가 등록 1960년 7월 1일 등록번호 제 다523호

발행인	이강혁
편집인겸주간	지재운
편집장	이상필

외대신문사(☎962-7128, 961-4151)
외대학보(☎965-7048, 961-4152)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1
449-791 경기도 용인군 보현면 왕산리

인쇄인 김영로

제539호 〈주간〉 THE OE DAE HAK BO PUBLISHED BY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1990년 4월 17일 (화요일)

개교36주년 기념호

임수경의 날개 달아 통일의 잎을 물고

솟아라 비둘기여
이문벌 하늘 높이
왕산골 하늘 높이
비둘기여 솟아올라라
한국외국어대학교 서른 여섯 해
진리 평화 창조의 역사를 이고
임수경의 날개 달아
통일의 잎을 물고
남과 북의 하나됨을 위해
자유와 민주, 자주와 평등의 새날 위해
솟구쳐라 비둘기여
반도의 어둠 뚫고 새벽 하늘로

누가 우리의 믿음
해치려는가
누가 우리의 갈길
막아서는가
누가 우리의 평화
깨뜨리려는가
나는 너를 위해
너는 나를 위해
서로 받들고 서로 감싸주는 새하늘로
솟아라 솟아올라라 비둘기여
한라에서 백두까지
다시 천지에서 백록까지
한번 솟아올라
어둠이라는 어둠은 모두
두번 솟아올라
거짓이라는 거짓은 모두
세번 솟아올라
장벽이라는 장벽은 모두
네번 솟아올라
총칼이라는 총칼은 모두
다섯번 솟아올라
감옥이라는 감옥은 모두
여섯번 솟아올라
억압이라는 억압은 모두
일곱번 솟아올라
착취라는 착취는 모두
깨끗이 쓸어버려라
하나도 남김없이 쓸어버려라

그리하여
피투성이 부리로 새날을 여는
갈라진 발톱으로 새땅 일구는
찢어진 날개로 새하늘 끌어안는
이문벌 왕산골 비둘기떼여
수천 수만의 몸뚱어리 한몸 되어
수천 수만의 한 함성 되어
임수경의 날개 달아
통일의 잎을 물고
더 높이 더 빨리 솟아올라라
자유와 민주, 자주와 평등으로 이룩되는
평화의 새땅 향해
타오르는 불길로
솟구치는 해일로
마침내 혁명으로

창간기념시/선명한 동문시인·행정학과 88학번

컴퓨터 그라픽 / 안상수그라픽디자이너

밝/아/오/는/새/벽/이/여/외/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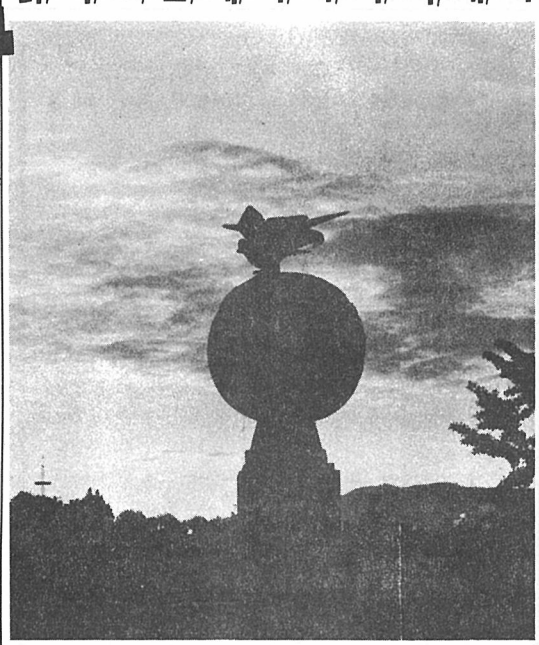


사진 / 허행진기자

개교 36주년 특집 설문조사

외대생이 뽑은 가장 자랑스런 선배 임수경

잃어버린 시간, 잃어버린 젊음, 잃어버린 캠퍼스, 영혼마저도 잃어버린 채 빈껍데기로 살아왔습니다. 잃고도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찾고 싶습니다. 환상속의 겨울무지개에 지나지 않을지라도……. 잃어버린 그 모두를 찾으려는 작업을 중단하지 않으렵니다.

—87년 제25회 외대문학상 소설부문에서 「잃어버린 영혼」으로 가작 수상이후 밝힌 입선 소감중에서(외대학보 87년 12월1일자)

남은건 나의 결사의 각오와 준비된 것에 대한 실행뿐이다. 초조하기만한 어둠은 이제 익숙해져 버렸고 다시 만날 날을 기다려야 하는 시기다. 보고싶다. 이 그리움은 한동안 지속되겠지. 그러나 우리들의 그날을 생각하자.

—89년 6월 20일 평양청년학생축전참가직전 신촌어딘가에서 남긴 편지중에서(월간 「말」지 9월호)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아래 통일조국을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당당히 밝힙시다. 희망찬 통일조국의 미래는 꿈이 아니라 다가오는 현실이며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평양청년학생축전 참가이후 옥중에서 전국의 대학생에게 보낸 편지중에서(외대학보 89년 9월5일자)

잃었던 대학인의 영혼을 끝끝내 찾겠다던 우리의 선배 임수경은 비록 지금 옥중의 몸이 되었지만 통일조국에 대한 신념으로 그리고 모든 대학인의 늘 푸른 조국에라는 현실속에서 그 꿈을 찾아내었다. 아마도 우리외대인이 이를 기억하고 자랑스러워 함은 영원할 외대사(史)와 함께 할 것이다.

〈관련기사 3, 7면〉

사 설

개교 36주년을 맞이하여

진정한 「외대사랑」은 현실 변혁의지로 부터

오는 4월20일(금)은 본교가 「세계를 호흡하는 민족의 대학」을 선언하며 문을 연지 서른여섯돌이 되는 날이다.

1954년 종로2가 82번지 영보빌딩 가교사에서 개교할 때만 해도 총 학과수 5개(영어과, 불어과, 독일어과, 중국어과, 노어과)에 1백50명 남짓의 학생수가 36년이 지난 지금은 통역 대학원등 5개 대학원과 학부에 자연과학대를 포함하여 11개 단과 대학, 60개 학과로 늘어났으며, 총 졸업생수는 2만8천2백86명, 재학생도 1만5천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제 「마속 빛나는 민족 사학」으로 발돋음하는 본교의 개교기념일을 앞두고 「외대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외대구성원 누구에게 물어보아도 어느 한명 학교의 발전을 바라지 않는 이는 없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매년 한번쯤은 학교당국과 학생이, 스승과 제자가 「적」으로 대립해야 했던 현실, 장미빛 인생(?)을 위해 일년 내내 도서관을 떠나지 않는 도서관파(派)와 학점이야 어떻든 술이나 마시고 이상한(?) 책만 읽어대는 학생회관파의 보이지 않았던 단절선, 본보 설문 조사 결과에서 보였듯이 대중가요나 민중가요는 달달 외워도 교가를 끝까지 부를 수 없는 외대생과 교가를 신입생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는 학교와 선배, 이러한 문제들이 바로 외대인 모두가 가져야 할 「외대사랑」을 가로막는 요소인 것이다. 학교당국과 학생이 대립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총장실을 점거해 대는 학생들의 무분별한(?) 「폭력」 때문은 아니요, 교수와 교직원의 업적난(?) 관료주의와 권위주의 때문만은 절대 아니다. 소위 「운동권」과 「비운동권」의 선이 어쩌서 그어져야 하는지도 외대인 누구나 명확한 답을 내릴 수 없는 문제이다.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모순으로, 거기서 연유하는 「자주화」 되어 있지 못한 학원의 현실이 바로 진정한 본교의 발전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주원인인 것이다. 무조건 「이해」와 「화합」만을 강조하는 무원칙한 「타협주의」는 결코 「외대 사랑」의 결집들이 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

외대를 구성하고 발전시키는 주체는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학의 본연인 진리탐구의 목적을 토대로 한국사회가 갖는 특수성 속에 대학이 수행해 왔던 모순타파, 현실변혁의지를 올바르게 이루어 나갈 때 바람직한 「외대사랑」은 가능하게 될 것이다.

4월 혁명의 「성장 전환」을 이루자

「피의 화요일」이라 불리우는 1960년 4월 19일.

언론·출판·집회·결사등 국민의 기본적 자유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한 자유당 독재정권에, 안으로는 분단에 대하여 통일, 밖으로는 비자주적 상황에 대하여 정치적으로 자주, 경제적으로는 자립경제의 실현을 부르짖었던 그날이 올해로 30주년을 맞는다.

그러나 지난 30여년은 4월혁명에서 제기되었던 사회의 민주, 민족의 자주, 조국의 통일이라는 변혁적 요구가 루테타로 4월혁명을 부정하고 등장한 역대 군부집권세력에 의하여 폭력적으로 제지되어왔음이 사실이다.

더우기 자유당 독재정권과 현정권은 그 태동과 성장과정에서도 본질적인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즉, 당시 자유당이 정권유지에 급급하여 3·15부정선거등을 저지른 것에 전주어 불매, 현정권은 지배체제의 위기를 타파하고 안정적 지배구도 확립을 위하여 몇몇 정치인끼리의 야합의 산물인 민자당을 결성한 것이 그것이다.

한편, 국민의 기본적 자유권의 침해는 6공들어 하루 평균 2명이 넘는 양심수의 구속, KBS에 대한 언론탄압, 전교조의 평화적인 집회및 시위—온나라 걷기대회—에 대한 무차별 연행·구타, 노동법 개악을 통한 전노협 탄압 음직임등에서 쉽게 확인할수 있다.

우리와 같이 외세의 규정에 의해 분단된 조국을 가진 정치현실속에서 반봉건·반외세·반매판의 민족혁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청년학생은 결코 이기적이고 감상적인 지식인으로서만 위치지워질수는 없으며 사회변혁의 중요한 동력임을 4·19는 역사적 교훈으로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다.

그러하기에 현 시기는 청년학생들이 사회변혁의 중요한 동력으로 자리하여 4월혁명의 교훈을 현 시기 정치정세와 상황에 발전적으로 적용하여 그것의 「성장전환」을 이뤄야 할 시기이다.

즉, 4·19를 넘어, 5·18을 딛고, 6·10대항쟁을 통해 발전한 민족·민주역량을 총결집시켜 4월혁명이 제기했던 민족경제의 확립, 외세에 대한 정치적 독립, 그리고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해야 할 때인 것이다.

민주인의 생활은 학내 휴지줍기부터

지난 4월4일에는 노천극장에서 총학생회 발대식이 있었다. 앞으로 1년간 학생들의 총실한 심부름꾼이 될 것을 맹세하며, 아울러 즐거운 행사도 있었다.

그러나 식목일을 지낸후 금요일에 등교 해서본 노천극장은 뒷치리를 하지 않은 채 어제의 지저분한 상태 그대로였다. 여러가지 팜플렛, 한쪽 줄이 끊어져 바람에 날리는 현수막등….

그날 행사가 끝난후 깨끗이 치울 시간이 없었는지….

물론 이것은 행사를 주관한 총학측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화를 외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더욱 큰 책임은 외대의 주인인 우리에게 있다고 할 수 있다.

한나라를 깨끗이 해야하는 책임이 그 나라 국민에게 있듯이 외대를 깨끗이 해야하는 책임은 우리 외대인에게 있는 것이리라.

깨끗함이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올바르지 못한 것을 바로잡는 정신적 깨끗함이요, 나머지 하나는 아름다운 환경을 가꾸는 물리적 깨끗함을 들 수 있다. 그동안 우리는 제단의 비리같은 것을 바로잡는 정신적 깨끗함을 위하여 물리적 깨끗함을 망각하고 있지나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것 역시 우리의 책임이라 밖에 볼 수 없다. 그러니 결코 청소아저씨들에게 전가되어서는 안되는 문제인 것이다.

그날 행사에 참여했던 각자가 하나씩만 더 휴지들을 주우려했다면 더 바랄나위 없는 행사가 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민주인으로서의 우리의 품위도 한층 향상시킬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작은 일에서부터 민주인의 태도를 지녀나가야만, 나중 사회인이 되었을때 진정한 민주인의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 진다.

『외대인 여러분, 강의실에 가는 도중, 떨어져 있는 휴지를 보고 눈만 찌푸릴것이 아니라, 주워서 휴지통에 넣는다면 그 모습이야말로 진정 아름답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서양·서반아어1 주성득〉

웅비하는 2천년대를 향해

◇이강혁 총장

오늘 개교 36주년을 맞이하여 모든 외대인은 벅찬 감격을 금할길 없습니다.

진리·평화·창조의 숭고한 건학이념으로 문을 연 우리 외대는 그동안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개교이래 1957년에 교사를 현재의 이문동으로 옮기기까지는 본교가 세계를 호흡하는 대학으로서의 면모를갖추는 요람기였습니다.이시기에 우리 외대는 고급 인력을 양성하여 세계무대에 진출시켰고, 세계 여러나라의 명문 대학들과의 학문적 교류도 활발히 전개하였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발전으로 드디어 본교는 1981년에 종합대학교로 승격되었고 세계 각국의 어문학은 물론 지역 사정과 인문, 사회, 자연과학을 광범하고 다양하게 연구하는 명문 사학으로서의 토대를 굳건히 다지는 동시에 웅대한 용인 캠퍼스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외대가족은 진리·평화·창조의 건학 이념이 구현되는 그날까지 혼연일체가 되어 발전과 도약을 추구하는 대열에 혼연히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1990년대 문턱에서 2천년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를 감안할때 우리 외대가 담당해야 할 소임이 너무도 크고 넓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개교 36주년을 맞이한 성년 외대가 2천년대의 주역이 될것을 확신하면서 우리 모두 분발할것을 다짐합니다.

우리는 하루 빨리 국민과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신뢰받는 대학으로 그면모를 쇄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외대의 발전을 위하여 모든 시련과 도전을 이겨내시고 온갖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외대가족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모든 외대인의 건투를 빕니다.

세계속에 우뚝 선 외대인

◇이숙경 이사장

우리 외국어대학교는 국제 환경의 변화로 다른 어느 해 보다도 희망에 넘치는 시기에 개교 36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세계는 바야흐로 개방화 시대, 동서 화해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동구 여러나라에도 커다란 변화의 물결이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외국어대학이 개교할 당시 우리나라에는 국제 무대에서 활동할 유능한 인재를 기르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했습니다. 이에 전쟁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초토속에서 종로의 한 건물에서 개교한 이래 현재와 같은 국제환경의 변화에 대비하며 발전을 거듭하여 오늘의 명문 대학이 되었습니다.

본교는 세계적 명문대학으로 발돋음하는 비약적인 발전에 걸맞는 내적 충실을 기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지난 10일에는 제단 수익사업의 하나로 지하3층 지상13층에 건평이 2천7백여평의 건물을 준공하였습니다. 이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우리 외대의 발전에 투입될 것입니다.

또한 본교는 동구의 여러 사회주의 국가들과도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며 소련 중국과의 국교 수립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본교는 그동안 자유진영의 중요한 모든 나라의 이문동으로 옮기기까지는 본교가 세계를 호흡하는 대학으로서의 면모를갖추는 요람기였습니다.이시기에 우리 외대는 고급 인력을 양성하여 세계무대에 진출시켰고, 세계 여러나라의 명문 대학들과의 학문적 교류도 활발히 전개하였습니다.

개교36주년 기념호

개교기념 축사

신뢰받는 대학으로 서자

외대인의 기상, 세계로 펴자

흡산의 소리

환경보호는 우리의 삶터를 가꾸는 일입니다.

명수당. 왕산의 일굴이라 누가 말했던가./ 아무도 말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시원히 터진 왕산에 내리면 가장 먼저 우리를 맞는 것이 아름다운 명수당이 아니던가. 우리에게 있어서 작은 연인의 모습이리라.

그런데, 며칠전 찾아간 명수당은 귀여운 연인의 얼굴이 아니었다. 명수당 주위에 버려진 오물들이 날 괴롭혔고 물위에 떠..다니는 과자봉지는 나에게 있어 환경의 한귀퉁이를 생각케 했다. 땅가지고 병들어 가는 나의 일부를 보는 기분이었다. 또 한가지 나의 눈에는 매우 믿기 어려운 모습이 들어왔다. 청어에게 먹이를 주는 아름다운 이의 모습처럼 보였는데 뒤이어 그 사람의 손에는 들이 들리워져 있었다. 시위 연습을 하는 것일까? 우리의 생존권이 지켜져야하듯이 물고기의 생존권도 지켜져야 하는 것이 아닐까?

일마전 선배형에게 들은 얘기가 있는데 작년에 자연과학대 환경학과에서 명수당 수질조사를 한 일이 있다고 한다. 그 결과 물이 전체적으로 고여 있는 형태여서 그 오염도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그저 아름답게만 여겨지던 명수당의 두번째 얼굴을 보는 섬찟한 느낌이었다. 얼마전 새 동아리로 「알섬초등」이라는 동아리가 등록되었다는 소식을 학보에서 접한 바 있다. 우리 주위의 환경을 지키자는 것이 그 기치라 한다. 또한 얼마전 유럽에서도 각국에서 녹색당이 상당수의 의석을 차지한 바 있지 않은가.

환경은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삶의 터전일 것이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작은 것부터 채워나가는 왕산인이기를 기대한다. 『명수당을 지킵시다./』

〈등학·아프리카어2 최윤현〉

무참히 짓밟힌 잔디를 우리 손으로 살리자

우리 외대는 앉아서 쉴만한 푸른 잔디밭이 참으로 부족하다.

잔디가 자랄 공간이 없어서 일까. 아니다. 우리 주위에는 잔디가 자라는 곳이 너무나도 많다. 분수대 주위부터 상징탑 주위, 소운동장 주위, 좁은 곳은 본관 좌측, 대학원앞까지 찾아보면 너무나 많다.

그런데 그곳에 왜 그렇게 잔디가 자라나지 못하는 것일까? 그 이유중 무엇보다도 가장 큰 것이 우리 외대인의 무심한 발걸음일 것이다. 그밖의 원인으로는 잔디밭에서 불피우는 행위, 축제때 가게등을 차리는 것을 비롯하여 분수대, 중앙는 후문 주민들의 출퇴근 또는 장보는 지름길이 되어 버렸다.

이렇게 죽어버린 잔디는 영 살아날 줄 모른다. 이제 우리는 국민학생도 중학생도 아니다. 나이 20살이상이면 어느 정도 철도들고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판별할 줄 아는 나이일 것이다. 새삼스레 잔디밭에 풋말을 세우거나 줄을 치는 행위는 우리 자신들이 생각해보아도 너무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아닐까?

굳이 『여러분 이제 잔디를 함부로 밟거나 잔디밭에서 불피우지 말시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다. 이제 우리는 그 정도는 알고 스스로의 행동을 자제할 수 있는 충분한 나이의 성인이기까.

〈상경·경제3 김성철〉

〈알림〉

『흡산의 소리』를 모읍니다

여러분의 소리를 모읍니다. 학교나 사회에서 생기는 일에 대한 비판·제언의 목소리나 고발사진, 만평등도 좋습니다.

2~7매 정도로 쓰신 원고를 가지고 학생회관 2층으로 오십시오.

◇채택된 원고의 고료를 찾아가십시오.

등록금 투쟁은 나에게 대학의 자율과 권리 요구에 대해 깨닫게 해 주었다.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을 접하면서 제일 크게 다가온 것은 자율과 투쟁이란 단어이다. 지금까지는 자주 듣지도 또는 깊게 생각해 보지도 않은 말이어서 조금은 낯설고 어색하다. 이러한 내게 등록금 투쟁과 그 결과는 퍽놀랍고 새로운 충격이라고 할 수 있다.

「등록금의 높은 인상/ 그것이 옳지 못하다고 해도 어떻게 외쳐야 하고, 또한 그 외침이 학교측에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었다. 나는 학생들이 조금 불편하거나 부당한 것을 학교측에 외친다고 해서 학교정책에 커다란 변화를 줄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그래서, 게시판마다 붙어 있는 대자보나 등록금 인상 반대시위, 학생회 임원들의 단식 투쟁들을 바라보면서도 신뢰와 확신보다는 의심이 앞섰다.

그러나, 뜻밖에도 등록금은 학교측이 처음 제의 했던 16.11%보다 훨씬 낮은 6.63%로 결정되었고, 나는 이제까지의 내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바르지 못한 것은 우리의 용기와 외침으로 개선될 수 있고, 부당한 일에 맞서 권리를 찾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바르지 못한 일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쳐 나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결정된 등록금 인상이 내겐 퍽 자랑스럽다. 그것은 우리의 권리를 찾겠다는 노력과 용기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서학·불어1 백은자〉

답변란

지난 536호 「도서관 주5일 근무제로 학생들의 이용에 불편을 주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라는 류창호(법·법학3)군의 글에 대해 우먀용총무처장은 『학생들의 열의에 따라 오는 21일(토)부터 오전 9시에서 오후 1시까지 참고열람실을 열기로 합의를 보았다』라고 밝혀 앞으로는 토요일에도 참고열람실은 이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90대학장학생 모집

(학군·학사사관)

·모집인원:1학년(○○○명), 2학년(○○○명)

·지원자격:4년제대학—1학년('68.1.1~'74.1.1출생자)
2학년('67.1.1~'73.1.1출생자)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기간:'90.3.10~5.20(학군단 본부)
·구비서류

1차(지원시)	2차(신체 검사시)
·지원서(사진 첨부)및 서약서 ……2각1부 ·대학입학 및 성적증명서 ……2각1부	·호적등본및 주민등록등본 ……2각1부 ·재정보증서, 납세 및 인감증명서 ……2각1부 ·사진(4×5cm) …3매

·선발절차
·1차:서류전형(입학 및 대학성적), 면접, 체력검정
·2차:신체검사

·합격자발표:'90.8.25

·특전
·학군 및 학사사관 후보생으로 자동선발
·대학졸업시까지 등록금 지급
·희망 및 전공학과 고려 병과분류 보직 활용
·전역시 직업보도 실시(대기업체 우대선발 및 취우)

육 군 본 부

공 고

1990학년도 본대학교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이수 학생에 대한 교육실습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함.

아 래

1. 교육실습기간:'90.5.7(월)—6.2(토)—4주간
2. 교육실습학교 사전방문에 관한 사항
1)본인의 실습학교 배정을 '90.4.23—4.26일까지(서울캠퍼스—사범대 교학과, 용인캠퍼스—교무과)확인한 후 실습학교 조장(전화번호가 명기된 실습생)에게 연락바랍니다.
2)각실습학교 조장은 '90.4.27(금)까지 사범대학 교학과에서 실습학교 방문일정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3)지방에서 교육실습을 받기로한 학생은 '90.4.27(금) 17:00까지 사범대학 교학과에서 실습일정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4)실습학교 배정 명단에 누락된 학생은 사범대학 교학과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5)실습학교 사전방문은 '90.5.4, 14:00까지 실습조장과 함께 실습생 전원이 방문하여 해당학교로부터 실습에 관한 교육을 받기 바랍니다.
3. 참고사항
1)참고실습일지 대금 1,000원을(서울 캠퍼스—사범대학 교학과, 용인캠퍼스—교무과)납부한후 교육실습일지를 수령하기 바랍니다.
2)교육실습명찰은 교육실습일지와 함께 수령하기 바랍니다.

1990년 4월 17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사범대학장

제9회 독일·소련 견학

전국대학생 통일논문 현상공모

◎논 제 ○한민족공동체의 형성과 「남북연합」의 실천적 과제
○남북한 평화정착 및 신뢰조성 방안
○대학인의 통일의식과 통일문제 의식의 새 방향
※위 논제중 택1

◎대 상 대학(대학원) 재학생

◎시 상 ○최우수작1편:국토통일원장관상 및 부상 100만원
○우 수 작2편:국토통일원장관상 및 부상 각50만원
○가 작5편:국토통일원장관상 및 부상 각30만원
○장 려5편:국토통일원장관상 및 부상 각20만원
※최우수·우수·가작 입상자에 대해서는 공산권 연수기회 부여

◎마 감 1990년 8월 30일

◎분 량 200자 원고지 기준 80매 내외

◎발 표 1990년 10월중(개별통지)

◎보낼곳 국토통일원 교육홍보국 교육과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

◎기 타 ○응모원고는 변환하지 않음
○성명과 주소(전화번호), 소속대학·학과 명기
○논문제출시 재학증명서 1부 첨부
○상세한 내용은 국토통일원(☎ 738—7522) 또는 소속대학 통일문제 유관연구소에 문의
(본교는 한국지역문제연구소 ☎ 961—4162에 문의)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지역문제연구소

4월혁명 계승주간 선포

서울·용인, 30주년 기념행사 활발

기념식, 마라톤, 수유리 방문등 진행

4·19혁명 30주년을 맞아 서울·용인 총학생회는 지난 4월16일(월)부터 오는19일(목)까지를 4·19계승주간으로 잡고 각각 선포식과 기념식등을 벌이고 있다.

용인캠퍼스 이제(16일) 오후2시 2백여명의 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4월혁명기념및 민자당 분쇄를 위한 애국외대 궐기대회」를 해방광장에서 열고 △친미파쇼아합 민자당을 분쇄할 것 △민중지원 연대투쟁을 강화할것 등을 결의했다.

이후 용인캠퍼스 4·19계승주간 일정은 다음과 같다.

△17일(화):용성총련 출범식 참여를 위한 출정식(오후2시 해방광장) △18일(수):상황극—모의 민자당 창당대회, 4·19계승 마라톤 △19일(목):4·19혁명 30주년 기념식(오후2시 해방광장)

서울캠퍼스의 경우 오늘(17일) 오후1시 노천극장서 「4·19혁명 계승주간 선포와 서총련 발족식 사수를위한 애국외대 출정식」을 개최 할 예정이며 18일(수)에는 과별로 수유리 방문, 19일(목)은 4·19기념집회를 오후2시 노천극장서 벌일 예정이다.

이번 4·19계승주간에대해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기획부장 이현숙(정과·신방4)양은 「4·19는 독재정권에 항거한 청년학도들의 민주와 통일에대한 열망이었다」며 『모든 학생들의 역량 결집을통해 서총련과 전대협을 사수해내며 이를통해 힘있는 5월투쟁을 내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승만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전국민적운동인 4·19혁명일을 맞아 캠퍼스 총학생회에서 준비한 투쟁일정과 기념행사는 4·19혁명의 의의와 성과를 알 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또 이후 5·6월 반민자당투쟁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람어과 월드컵우승

지난 4월2일(월)부터 10일간 서울캠퍼스 27개과가 참가, 열전을 벌였던「제9회 모의월드컵」에서 아랍어과가 우승을 차지하였다.

4월11일(수) 결승전과 시상식으로 막을 내린 이번 대회에서 준우승으로 법학과, 단결상으로 꼬이과가 각각 시상되었으며 최우수선수에는 조하영(동양·아랍어3)군, 득점상 정세원(법·법학4)군, 신인상 길창조(법·법학1)군이 선정되었다.

한편, 지난 4월9일(월) 아랍어과대 경제과의 준준결승 경기도중 경제과 한선수가 심판의 판정에 불복, 심판을 폭행하고 골대를 옮겨놓는등의 행위를 이유로 경제과는다음제10회 모의월드컵 참가자격이 박탈되었다.

취업특강 서울,18일 용인,19일

졸업준비위원회는 4학년을 위한 취업특강을 서울과 용인에서 18일(수)오후4시, 19일(목) 오후3시에 각각 실시한다.

「리크루트」편집장의 각 기업 전망과 취업에 관한 전반적인 준비를 내용으로 강의하게 될 이번특강은 서울은 대학원 105호에서 용인은 자연과학대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전대협 정기 대의원 총회 개최

의장에 송갑석군 선출, 투쟁노선 확정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이하 전대협)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4월10일(화) 부터 11일(수)까지 양일간 경희대 크라운관에서 열렸다.

△제4기 전대협의장선출 △상반기 투쟁노선 확정 △지구총화및 조직노선등의 논의로 1백11개 대학의 총학생회장이 참가한 이번 총회에서 전대협은 「민자당 분쇄」와 이에 따른 구체적 방법에 대한 토의를 활발히 진행하였다.

「이날 총회에서 제4차중앙위(24개지구대표모임)의 「투쟁노선」이 전체대의원의 찬반투표로 진행되었고 서총련남부지구대표 김주옥 서울대총학생회장의 안이 이견(異見)으로 제출되어 10일 오후부터 11일 아침까지 10여시간이 걸친 토론에 부쳐졌다.

양안은 구체적으로 첫째 민자당 창당의 배경과 본질,둘째 정치적과제, 셋째 조직적과제, 넷째 4·5월투쟁기조등에 대해 서총련의장 윤진호군과 서총련남부지구 김주옥군의 기조발제 후 각 안팔 토의가 진행되었고 중앙위 제시안이표결결과 1백3명의 대의원의 참가 87명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관련기사 6면〉

투쟁선언문에서 전대협은 『친미파쇼연합 민자당독재 분쇄하고 90년대 자주·민주·통일운동의 총체적 발전을 가속화하겠다』고 밝히며 『장기집권·영구분단 음모의 민자당 분쇄와 남북자주교류를 위한 5월3일 민자당창당예정일 결사저지, 1천개 학과 10만명 방북신청등을 구체적 안으로 내놓았다.

▲지난 4월12일(목) 오전10시 제4기 전대협의장 송갑석군이 서울지역 대학신문 기자연합 소속기자들과 경희대 크라운관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있다.

10일오전에 있었던 「지구총화」에서 서총련의장 윤진호군은 『대중적 힘에 기초한 민주적 조직체계로 학생회를 건설할 것』을, 용성총련은 「임수경전대협후원회 건설」을, 마창지구는 「노·농·학연대투쟁의 방법과 노·농·학의 노동운동탄압분쇄특위 준비사항」을 내놓는등의 지구보고가 이채로왔다.

11일에는 제4기 전대협입시의장인 송갑석 전남대총학생회장이 참가대의원 1백3명중 찬성92표, 반대10표, 무효1표로 제4기 전대협의장에 선출되었다.

송군은 『전대협 3년간의 성과와 백만학우의 투쟁의 외치로 90년대의 위대한 민족·민주투쟁의 장에 전대협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라고 소감을 밝혔으며 전대협의 공식적 의사대변인으로 한양대 총학생회장 김재웅군을 선임하였다.

한편 전대협발대식은 5월19일(토)을 전후로 전남대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전대협 대변인은 밝혔다.

알 림

본보는 중간고사관계로 2주간 휴간하고 다음호(540호)는 5월8일(화)자로 발간됨을 알려 드립니다. 독자여러분의 계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외 대 학 보

대학원 경정과

주임교수발령 철회

경정대학원 반대표명후 전원자퇴 결의

「박사과정 공동관리」, 「양대학원 통합논의」등을 놓고 일반대학원 경영정보학과와 경영정보대학원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가운데 학부경정과까지 가세 첨거농성을 벌이는등 극한 상황으로 치달았던 대학원 주임교수 임용문제가 지난 4월12일(목) 학교측에서 「대학원 경영정보학과 주임교수에 대학원 교학부장을 임명, 잠정적으로 결직하도록 한다」고 결정하므로써 일단락 지어졌으나 다시 경영정보대학원생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지난 3월29일(목)부터 12일 동안 총장실을 점거하고 지난 4월11일(수) 기획조정처장실 제점거에 들어갔던 일반대학원 경정과및 학부경정과 40여명의 학생은 학교측에서 주임교수 임용반복 결정이 발표된 12일(목) 농성을 풀고 해산하였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경영정보대학원생들은 학교측의 주임교수 임용반복 결정발표 이후 다음날 1백40여명의 원생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원 411호에서 「경영정보대학원 비상과총회」를 열고 오늘(17일)까지 학교측에게 박사과정 공동관리에 대한 발표가 없으면 23일(월)부터 원생 전원의 수업거부, 자퇴서 제출을 결의하였다.

△총장과 대학원생 전원 대담 △경영정보 대학원의 현체제 유지 △경영정보대학원의 박사과정 교과심의회 구성등을 제시한 이날 경정대학원 학생회장 임홍빈(석사과정 3학기)군은 『박사과정은 경정대학원에 있어 필수적이기 때문에 공동관리위원회를 즉각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의 무분별한 학사행정에서 야기된 이번 「주임교수 문제」는 대학원 경정과 박사과정 관리에 대해 대학원 경정과와 학부 경정과는, 독립성을 바탕으로 한 독자적 관리를 주장, 경영정보대학원의 참여를 반대하고 있으며 경영정보대학원은 특수대학원으로서 문교법령상 설치키 불가능한 박사과정을 현 학교헐편상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공동관리를 통해 참여할 수 밖에 없어 양대학원간에 첨예한 이해가 대립된 문제이다.

학교측의 번복결정으로 경정과는 독립성을 통한 박사과정의 독자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경영정보대학원은 박사과정 참여의 길이 사실상 막혀 버린 상태이다.

결국 이번 문제의 해결은 이러한 임시방편적·근시안적인 학교측의 대안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은 물론 양대학원간의 대립만 더욱 심화시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과대 내일 보궐선거 이건후보 단독 출마

정책과학대 학생회장 김병철(제적상태)군이 한달보름여 동안 소재파악이 되고있지 않아 정과대 3개과(정외과, 신방과, 행정학과) 「과회장 협의회」는 지난 11일(수) 궐석문제를 해결코자 보궐선거시행을 결정, 선거일정을 발표하였다.

지난 12, 13일(금) 양일간 등록을 마쳐 정과대 기획·총무부장 이건(정외3)군이 단독 입후보해 어제 유세를 치뤘고 선거는 내일(18일)오전8시30분부터 오후5시까지 사회과학관 앞에서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과대는 김병철회장의 부제로 지난 3월19일(월)부터 이건 기획·총무부장의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되어 왔다.

졸업예정자 대기업 선호

졸준위 설문조사결과 나타나

졸업준비위원회(졸준위)가 지난 3월중순 양캠퍼스 4학년 남학생 3백41명 여학생 1백46명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취업분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남학생은 대기업, 공사, 금융계를 선호하고 여학생은 공사, 외국기업, 언론계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래 진로에 관해서는 남학생의 경우 취업 2백20명(64.5%), 대학원 43명(12%)유학 21명(6%), 군입대 16명(4.6%), 개인사업 15명(4.3%), 순으로 나타났고 여학생의 경우 취업 99명(67.8%), 대학원 19명(13%) 유학 12명 (8%), 기타10명(6.8%)순으로 나타났다.

취업 분야별로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대기업 94명(27.5%), 공사 67명(19.6%), 금융계 51명(14.9%), 언론계 41명(12%), 순으로 나타났고 여학생의 경우 공사 28명(19%), 외국기업 22명(15%), 언론계 19명(13%), 기타 18명(12.3%), 중소기업 13명(8.9%)순이었다.

학생들의 대기업 선호 성향에대해 졸준위 관계자는 『자신의 능력발휘나 역할수행의 폭이 넓고, 대기업 근무시 그 경력을 인정해 주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한수도

▲박철언, 장관직사퇴
—1노2김이 짝짝궁, 국민앞에서 짝짝궁
▲본교 개교 36주년 맞아
—더욱 굳건한 민족대학으로
▲문희갑 민자의원, 교통사고당해
—우심(牛心)은 민심(民心)

빈의자

「명색」이 서사장

▲지난 9일 임명이 결정된 후 당신의 부하직원이라할 일반사원은 물론 간부급까지 포함한 전직원에게 퇴진을 요구받고 있는 「명색」이 KBS사장 서기원씨. 저는 서기원씨의 입장이 이제는 국민의 여론까지 자신에게 불리하게 기울자 지난 14일에 전 일간지에 몸소 발표하신 그 을분에 찬(?) 호소문을 매우 흥미있게 읽은바있습니다.

「곡절이야 어떻든 KBS의 운영책임을 맡은 저로서는……」, 「부득이 공권력을 요청……」

노조원들의 방송태업을 불법이라 설명하시려는 이 호소문에는 놀랍게도 서기원씨 자신의 소행을 애기하는 대목에선 「곡절이야……부득이……」하는 식의 비논리로 얼버무리고 계시더군요.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서 일국의 국영방송사장이 전직원, 아니 전 시청자가 원치않는 데에도 「곡절이야 어떻든」 임명돼야 하고, 또 이를 반대하는 직원을 「부득이」 경찰까지 동원해 구속시켜가며 그 자리에 앉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서기원씨 당신은 80년 당시 광주시민을 폭도로 거짓선전하고, 이제는 벤담사에 쫓겨앉은 당시의 책임자들 칭이 바로 도록 합리화시키려 했던 분으로써, 전직 청와대 대변인을 지내며 80년대 권력의 흉탄한 앵무새 역할을하신분이시더군요.

아마도 모든 부도덕한 정권이 우선적으로 선취하려 했던것은 언론이었다는 정도는 서기원씨도 상식적으로 아시리라 믿습니다. 최근 정부의 고도화된 언론정책에는 「언론플레이」니 뭐니하는 소위 국민의 탈정치화와 비판의식마비를 조장하기 위한 사기술이 이용되고 있다더군요.

바로 정부의 의도는 서기원씨 당신의 임명을 통해 그나마 80년대 단계적으로 민주화되어온 현 TV방송을 또다시 당신들의 손아귀에 거머쥐려는것이 아닙니까?

▲국가의 중요기관인 KBS가 무너지는 것을 못참겠고, 국가의 기틀이 무너지는 것은 더더욱 못참겠다는 결의를 보이신 서기원씨.

과연 당신이 지키겠다는 국가의 기틀은 무엇이고, 그토록 그 작업에 KBS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솔직한 대답을 듣고싶군요.

연락극 한 프로, 쇼프로하나 그정도 못보아도 우리 국민은 괜찮습니다. 오로지 올바른 우리의 눈과귀를 원할 뿐이지요.

끝으로, 비켜이 호소문끝에 대통령한분만이 답아준 KBS사장쟁패를 답아놓은 서기원씨께 어느 시민이 KBS노조원에게 보냈다는 전화내용의 한 구절을 전해주고 싶군요.

『KBS에 대한 경찰투입은 시청자들의 안방에 투입한 것과 같다. 끝까지 싸워 것밤한 시청자들의 자존심을 반드시 회복해 달라(한겨레신문, 4월14일자).』

(김창섭)

4월혁명30주년기념광고

'60-'90 4·19

또다시 30년후,
당신은 이시대 이날에 무엇을 하였다고
말하시겠습니까?

(사진자료「시사저널」「신동아」에서)

부정선거, 국민의 민주화요구에 대한 폭력적 탄압
결국 60년 당시 독재와 위선의 정권은 4·19라는 국민의 힘에
준엄한 역사적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국민을 배신하는 정치의 폭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3당통합, 부정선거, 기만적 북방정책, 주권잃은 대미외교, 노동자의 출혈을 요구하는 경제정책, 사립학교교육법, KBS언론탄압사태…
이제 이땅의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국민앞에 역사는 또다시 30년만의 중대한 과제를 주고 있습니다.

60년의 4·19, 총칼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았던 그 날의 승리를 기억하십니까?

다시 30년후,
90년 이 시대 이 날에 당신은 무엇을 하였다고 말하시겠습니까?

서울지역 대학신문 기자연합회

평화공존론과 반제국주의 전선의 위기

1. 들어가는 말

인간존중의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모든 사회제도를 인간본위로 변화시켜나가고자 했던 소련을 비롯한 동구사회주의권 개혁은 현재, 인민대중의 자주적 요구에 기초한 인민권력의 수립과 이에 의한 진정한 민주주의의 완성이라기보다는 자본주의에 대한 개방과 이의 침투 속에서 사회주의를 이탈하는 위험성마저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은 이 땅의 민족민주진영에도 적지않은 충격과 우려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아직도 대부분의 경우는 막연한 기대와 당혹감속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판단유보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현정세는 사회주의체제의 개혁운동의 내용과 본질에 대한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인식과 실천적 대응을 시급히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부르조아지의 독선적 이념공세에 함몰되어 있어서도 안되며 더불어 내부적인 문제의 해결에만 매몰된 채 세계변혁운동을 방기하는 현재의 개혁조류의 문제점에 대해 분명한 지적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 글은 일천한 인식에 의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동구사회주의개혁의 위험적 요인 및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를 방기하고 있는 소련의 평화공존론, 그리고 이에 편승한 자본주의권의 공세 및 제3세계 국가들이 당면한 현실적 위협성들을 서로 연관된 세계의 문제로 해명하고자 하는 하나의 시도가 될 것이다.

2. 최근 동구의 정치변화에 대해

1985년 고르바쵸프의 등장 이후 전면화된 소련 및 동구의개혁은 스탈린시대의 중공업 우선정책과 중앙집중권력의 관료적 폐단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정치·경제·사회 전분야에 걸친 사회주의의 위기의식에서 기인하였다. 즉 스탈린의 정책이 경제적으로는 양적 성장을 추구함으로써 경제관리체제의 한계에 부딪혔고 오히려 생산력 발전의 질곡으로 전화되었으며, 정치적으로는 관료집중적 권력체제로 인민대중과 당이 괴리되는 현상을 낳았던 것이다. 인민의 자주성을 창조적으로 발양시키지 못했던 과거 스탈린주의의 극복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혁정책은 소련에서 이미 생산수단의 사유화를 인정하고 정치적 다원주의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련의 이러한 전면적 개혁의 실시 이전에 헝가리와 폴란드에서는 사회주의를 이탈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제국주의 국가들의 자본진출을 무방비상태로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외연적 성장방식의 한계로 일어난 경제의 심각한 위기는 단지 생산력의 증대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이미 사회주의화된 국가들에서의 경제개혁은 상부구조인 정치부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특히 사회주의력 의식의 강화, 즉 사회주의적 사상개조의 부분이 동시에 수행되어야만 올바른 사회주의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동유럽 사회주의국가들은 이러한 기본적 인식의 틀 속에서 개혁을 주도해 나아기 보다는 미국·서독 등 서구 자본주의국가들이 자본유입을 개혁의 수단으로 보고 있으며 결국 이는 사회주의의 발전 보다는 사회주의로부터의 이탈을 부추기게되는 위험성을 내포하게 된다.

1989년 7월 일당독재를 폐기하고 의회민주주의의 육성, 완전한 자유선거의 실시를 선언한 헝가리는 그해 10월 신헌법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정당의 제도적 역할은 구시대적인 것이라고 밝히고 공산당의 사회지도적 역할 폐지, 개인의 재산권 인정 등과 함께 다당제 헌정국가로서 민주사회주의의 지향을 명시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90년 3월25일과 4월8일에 첫 자유총선을 실시하여 보수우파인 헝가리민주광장이 42.74%의 지지를 획득함으로써 총의석 3백86석 가운데 1백65석을 차지하여 제1당이 되었다. 이에 비해 공산당 내의 개혁파들이 주축을 이룬 사회당은 8.55%의 지지로 33석을 차지하는데 그쳐 제3당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이러한 선거결과는 그동안 공산당이 경제면에서의 실패를 보았고 관료적 중앙권력의 반발을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해 일어난 것이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중요한 이유로서 1992년 유럽시장의 통합을 앞두고 동구권을 새로운 상품시장화하기 위한 서독 등 서구자본의 외채제공 등의 자본공세 및 이의 부분발한 수용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동독은 사회주의화된 이후 경제적 측면에서 분명한 발전을 보여왔다. 그러나 스탈린식 관료체제로 경직화된 정치부문에서의 개혁요구는, 서독의 끊임없는 유혹에 의해 민대중을 새로운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 세우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제국주의의 위협이 계속 증대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자본주의적 요소의 도입등 대중의 자주적 요구를 올바로 이끌어내지 못하는 당의지도는 결국 진정한 인간해방의 길을 가로막는 또다른 질곡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3. 평화공존론과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

동구의 개혁과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가 제3세계의 진보세력에게 미치는 충격은 매우 심대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신사고」로 대표되는 소련의 국제관계에 대한 경향변화는 특히 그러하다. 그것은 이 새로운 정치적 사고가 각국의 변혁운동, 혹은 세계변혁운동의 이론과 실천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1989년 12월 몰타 정상회담에서 고르바쵸프서기장과 부시대통령은 긴장과 대결, 봉쇄를 넘어선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함께 선언하였다. 고르바쵸프는 이 새로운 시대가 인류를 핵무기의 공포로부터 해방시키고 군사적, 이데올로기적 대결에서 벗어나게 하는 「평화의 시대」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신사고는 인류가 계급적 모순 및 기타의 제 모순 가운데서 대립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동일한 문명사회에 위치한 운명공동체라는 사실에 바탕을 둔 개념이며, 기존의 마르크스주의의 계급적 관점에서 본다면 가히 혁명적 변화라고 할 수도 있다.

신사고에 바탕을 둔 소련의 대외정책은 1987년의 「INF폐기조약」에서 이미 가시화된 바 있다. 소련은 국제관계의 탈이데올로기화를 위해 대미 군축협상, 유럽자본주의국가들과의 경제협력 추진, 나토 및 바르샤바조약기구의 동시해체 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제3세계 같은 테제가 나오게 된 배경은 경제적 측면과 정치적, 군사적 측면에서 나누어 고찰할 필요가 있다. 먼저 경제적으로는, 후퇴하는 자본주의와 발전하는 사회주의의 투쟁과 상호작용이라는 전통적 전해가 더이상 현실과 부합되지 않음을 인정하면서 과학기술혁명시대의 국제경제관계는 상호의존적임을 수 밖에 없다는데서 그 배경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정치, 군사적 측면에서도 핵무기의 가공할 파괴력은 더 이상의 군비확장을 무의미하게 할 뿐만아니라 전세계적 차원에서 무력행사의 가능성을 제약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고르바쵸프의 신사고에 입각한 평화공존론은 계급투쟁의 한 형태로 나타난 기존의 평화공존론들과는 그 궤를 달리하는 것이다. 즉 새로운 평화공존노선은 그 자체가 전략적 목표이며 국제관계에서 이데올로기에 바탕을 둔 계급투쟁적 요소의 제거를 그 특징으로 한다.

신사고에 기초한 새로운 시대는 외형적으로 보아서 사회주의체제가 정치·경제·군사적 포위에서 벗어나는 현실은 주권국가에 대한 무력침공과 식민지적 자주권 유린이거 서로가 화해하는 평화의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다.

4. 제3세계에 미치는 개혁의 영향

위에서 서술한 고르바쵸프의 신사고는 평화공존이란 이름으로 결국은 미국을 비롯한 주요 자본주의 국가 지배층의 보수화를 부추기고 있다. 이로 인해 다수의 제3세계 국가들이 점점 강화되어가는 제국주의의 위협앞에 노출되어 허무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금 소련의 평화공존론은 계급문제보다 보편적, 전인류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강조하여 제3세계의 치열한 민족해방투쟁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결국 평화공존론의 원칙은 단순한 「평화애호운동」으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 있다. 즉 전인류적 차원에서의 핵전쟁 방지가 기시적으로는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겠지만, 기아와 질병, 내란으로 인한 희생자가 매년 수백만명을 넘는 제3세계의 입장에서 볼 때 이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선언적인 평화공존이 아니라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에 입각한 제국주의의 고립화이다. 평화는 인류사회의 생존을 위한 기본토대를 제공해주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체제간의 모순이나 노자간의 계급적 적대, 혹은 제국주의의 신식민주의 착취와 수탈을 해결해내지 못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지않은 평화공존의 원칙은 어떠한 수식어구를 보태더라도 그 본질은 국가이기주의의 변형에 불과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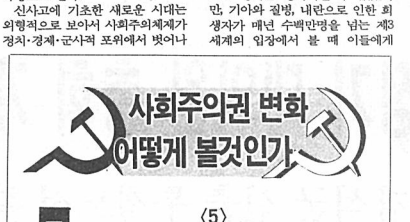
특히 올해 들어서 미국의 대 제3세계정책은 노골적인 군사개입의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자국의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평화공존정책을 취한 소련의 국가이기주의적 속성을 철저히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10년동안 미국의 끈질긴 무력간섭을 이겨내며 혁명을 수호해온 니카라과의 산디니스타정부가 미국의 간섭으로 하루아침에 친미야당에게 정권을 넘겨주었고, 반미적 입장을 견지하여 미국의 이익과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던 파나마의 노리에가 정부 역시 무력개입으로 전복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더불어 앨살바도르 등의 민족해방운동세력에게는 군사적, 정치적 압력이 점점 거세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의 직접적인 무력시위에 대해 신문과 방송을 통한 반박성명 이외의 어떠한 대응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실정이다.

현재 미국·유럽의 자본주의는 동구국가들을 자신들의 잉여자본을 받아들이는 나라로 만들어 예속적인 자본주의체제로 변형시키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제3세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약탈을 강화시켜나가고 있다. 헝가리 등의 동구국가들은 정치적 다원주의를 언급하면서 사회주의적 원칙에서 점차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폴란드 역시 자본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와 그에 합세한 반사회주의적 세력들에 의해 정권이 교체되고 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고르바쵸프의 평화공존노선은 동북아시아 특히 한반도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한반도의 군비축소와 평화분위기 구축이라는데 있어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그러나 경제협력이라는 이름아래 미·일입장에 동조하여 「두개의 한국」정책을 노골적으로 표명하면서 남북한 교차승인과 유엔동시가입에 대한 찬성은 결국 남북 분단고착화와 아울러 제국주의의 민족해방운동세력에 대한 탄압을 통해서 식민지배착취의 강화를 묵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결국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를 해소하면서 등장한 평화공존노선은 제3세계및 민족해방운동세력에게 치명적일 수 밖에 없고 이러한 세계정세변화를 올바로 파악하는 것은 한국사회변혁운동의 민족자결에 기초한 주체성 확립과 새로운 반제전선의 확립이라는 실천적 과제를 위한 전제가 필것이다.

최 정 호
〈대학원 동구지역학과 석사과정 3학기〉



계급적 이익에 대한 전 인류적 이익 우위의 평화공존 논리는 제국주의의 제3세계 침략 강화 계기로 작용

소금상자

당파성(黨派性)

계급사회에서 모든형태의 사회적 의식이 가질 수 밖에 없는 계급적 성격및 계급적 구속력을 의미한다.

사회적 의식은 사회적 존재에 최해서 반영되어 형성될때 자본주의와 같이 생산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한 즉, 유산자와 무산자로 나뉘어진 사회의 경우, 그 계급형태는 착취와 피착취의 적대적인 계급형태로 나뉘어질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적대계급으로 분리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그러한 이해관계의 반영인 사회적 의식이 당파성을 띨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부르조아진영의 논자들은 「신」「이념」등과 같은것을 보다 고차원적인 법칙으로 정당화시키고 이것이 인간에게는 보편적 무당파적이라 주장한다. 결국 이 논리자체도 계급적 착취관계를 은폐하는 당파적 지배 이데올로기에 다름아닌 것이다.

韓國火藥그룹

한국화약그룹과 함께
2000년대의 주역이 될
젊은 인재를 찾습니다.

1. 채용전공 및 접수처

채용예정인원 : 250명

회 사	모 집 전 공 분 야	지 원 서 교 부 및 접 수 처	문의전화
한국화학(주)	상경, 화공, 기계	100-220 중구 장교동1 한국화학(주) 인사과	729-1572
한양화학(주)	상경, 화공, 전기, 기계	100-220 중구 장교동1 한양화학(주) 인사과	729-2554
한양바스프우레탄(주)	상경, 법행, 화공, 화학, 전기, 전산, 기계	100-220 중구 장교동1 한양바스프우레탄(주) 인사과	729-2434
글린넬상사(주)	전산, 전자	100-220 중구 장교동1 글린넬상사(주) 업무과	729-3544
(주)빙그레	상경, 법행, 어문, 교육, 인문기타, 전산, 기계, 식품관련	130-035 동대문구 답십리5동 536-6 (주)빙그레 인사과	242-7174
한국종합기계(주)	상경, 법행, 인문기타, 금속, 전기, 전자, 전산, 기계, 산업공학	100-220 중구 장교동1 한국종합기계(주) 인사과	729-3033
한국정밀(주)	상경, 기계	130-035 동대문구 답십리5동 530-12 한국정밀(주) 인사과	248-1765
한국비커스(주)	상경, 기계	100-220 중구 장교동1 한국비커스(주) 인사과	729-3463
제일화재해상보험(주)	상경, 법행, 화공, 전기, 전산	100-110 중구 서소문동 12-1 제일화재해상보험(주) 인사과	771-73
제일증권(주)	상경, 법행, 전산	150-010 영등포구 여의도동 44-11 제일증권(주) 인사과	784-7233
삼화투자금융(주)	상경, 법학, 전산	100-220 중구 장교동1 삼화투자금융(주) 인사과	754-3232
태평개발(주)	상경, 법행, 인문기타(한광관련학과), 전산	100-102 중구 태평로 2가 23번지 태평개발(주) 인사과	771-22
(주) 한양유통	상경, 법행, 어문, 인문기타, 식품관련, 이공기타	133-791 중랑구 상봉 3동 40 (주) 한양유통 인사과	414-0141
서울청량리역사(주)	상경, 법행, 이공기타	100-162 중구 봉래동 2가 122-11 서울청량리역사(주) 총무과	312-2521

(특기사항) 인문기타는 영업부문화능지도 가능

2. 전형방법
가. 1차-서류전형(합격자는 개별통지 함)
나. 2차-면접전형(1차 합격자에 한하여, 전형일자 및 장소는 개별통지 함)

3. 응시자격
가. 4년제 정규대학 토목해양학과 및 관련학과 전공자로서 학사학위 기취득자 또는 1990년 8월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나. 각군 전역예정 장교
다. 1962년1월1일 이후 출생자로서 병역필 또는 면제자
라.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4. 제출서류
가. 입사지원서(당그룹 소정양식) ····· 면접용, 전산용 각 1통
나. 대학 전학년 성적증명서 ····· 1통
다. 주민등록 등본 ····· 1통
라. 자격 및 면허증 사본 ····· 1통(소지자에 한함)
마.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 ····· 1통(보훈대상자에 한함)

5.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1990년 4월 16일(월)~4월28일(토) 매일 09:00~17:00 (공휴일 제외)

6. 기타 주의사항
가. 입사지원서는 본인이 직접 정확하게 작성하시되 자후 기재사항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 합격(입사)을 취소함.
나. 현역 군복무중인 자는 1990년 7월말 이전 전역자에 한하여 지원가능함.
다.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오후 5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라. 국가보훈대상자는 취업보호대상자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법규에 의거 우대함.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원서 접수처의 각 회사 인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990년 4월

韓國火藥그룹

■ 화학 ●한국화약(주) ●한양화학(주) ●한양소재(주) ●한국바스프우레탄(주)
■ 에너지 ●경인에너지(주)
■ 무역 ●글린넬상사(주)
■ 식품 ●(주)빙그레
■ 전자/기계 ●고려씨스템산업(주) ●한국종합기계(주) ●한국정밀(주) ●한국자동차부품(주) ●한국비커스(주) ●태평양건설(주)
■ 건설 ■ 레저 ●한국국토개발(주)
■ 금융 ●제일화재해상보험(주) ●제일증권(주) ●제일경제연구소 ●제일투자자문(주) ●삼화투자금융(주) ●태평개발(주) (서울프라자호텔) ●(주)성운물산
■ 유통 ●(주)한양유통 ●서울청량리역사(주)
■ 사회복지 ●천안복일학원 ●(주)빙그레어린이집

문헌정보시대의 견인차

사회전반적 문제들을 인식하고 연구하는 학문의 분야를 「사회과학」이라고 한다. 그런데 사회과학의 연구범위는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며 또 추상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영역을 확정짓기란 쉽지않다. 이로인해 그와 관련된 자료나 정보를 제공받고자하는 수요에 따른 공급도 제대로 부응하고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속에서 지난 1983년 종로구 사직동에 개관한 이래 7년째를 맞고있는 「한국사회과학도서관」은 주목할만하다.

사회과학분야의 교육, 연구 및 실무에 필요한 각종도서와 관련정보자료들을 수집·정리 비치하여 우리나라 사회과학분야의 전문문헌정보센터로 자리매김하고있는 이곳에서는 단행본및 학위논문 4만여권, 학술정보및 학계동향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국내외 정기간행물 1천여종, 국제기구 통계자료와 세계각국의 통계연감등의 마이크로폼자료 5만여점이 소장되어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과학전반을 총괄하는 정치·경제·사회·법률·행정·경영을 비롯하여 심리학·인류학·여성학·도서관학·지역사회학등 분야의 자료와 81년부터의 국내석·박사학위논문들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 또한 미국의 부루킹연구소나 랜드연구소와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구기관들과 유대관계를 맺고 있어 외국정보를 손쉽게 또 다양하고 공부하게 접할 수 있다. 특히 81년 11월부터는 영국 왕립아시아학회와 체결된 협약에 따라 RAS출판물 남본 도서관으로 지정받아 귀중한 학국관계자료 1천여권을 기증받기도 하였다.

부속시설로는 1백20석의 대강당, 6개의 세미나실, 1백석의 일반열람실, 12개의 개인연구실이 있는데 이중에서 개인연구실은 대학강사, 지방대학 전임강사, 해외주재 대학교수들이 이용하고, 세미나실이나 일반열람실은 특별한 제한없이 일반인들에게 개방되고있다.

이 도서관의 큰 장점중의 하나라면 이용이 편리하다는 것이다.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대학생들을 비롯해 여타 관련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누구나에게 자료가 개방되고있고 신분증만 제시하면 무료로 모든 자료를 이용할수있다. 단지 불편한 점이라면 대출이 안된다는 것인데 이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므로 반납을 받는데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의 극복을 위해서 그 대책방안으로 회원제를 도입, 멀리 지방에 있는 회원들에겐 필요한 자료를 복사하여 우송해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열람시간은 참고열람실, 정기간행물및 학위논문실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반열람실은 (첫째, 세째 일요일 휴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개방된다.

전문도서관으로서는 우리나라에서 효시라고 할 수 있는 「한국사회과학도서관」은 이제 개관한 이래 7년을 맞고 있지만 아직도 극복해야할 많은 문제들을 여전히 안고있다. 사회전반을 다루는데 앞서 그 토대가 될수있고 연구자의 학문성격을 규정할 수 있는 철학관련서적이나 현사회의 올바른 인식과 발전의 방향을 제시할 역사관련서적이 거의 전무하다는 것과 도서및 자료구입에 있어서 문교당국의 직·간접적인 제약을 받는 것이 그것이다.

결국 이러한 문제점들은 사회과학전문도서관으로 제를을 찾아나가기 위한 자기노력과 아울러 한국사회의 실천적 발전을 위한 사회과학 학술풍토의 질적발전 요구속에서 해결해야만 할 학문·사상자유의 과제일 것이다.

〈황선혜기자〉

사람산책

박 은 미

민주의 넋 김주열

산과 들에 진달래가 만발한 4월. 우리에게 어김없이 찾아오는 이 봄에 기억되는 날이 있다. 4·19. 그 날 이승만 독재정권의 총성과 군중들의 노도와 같은 함성속에 쓰러져갔던 수 백의 학도들. 그들은 기성세대의 불의에 항거하여 자유와 정의를 위해 싸웠고, 3·15부정선거에 분노해 거리로 뛰쳐나가 독재의 아성과 싸우다 쓰러져갔다.

거리 여기저기에 흩어져있는 피에 고인 시체와 그 시체를 찾아 거리와 병원을 헤매며 울부짖는 어머니들의 모습은 30년이 지난 오늘도 우리들의 기억속에 여전히 그 핏빛함성과 절규로 남아있다. 아니 남아있어야 한다.

해마다 4·19가 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다. 김 주열, 16세의 어린 나이였다. 시험을 보기위해 전북 남원에서 마산으로 온 그에게도 3·15 부정선거는 울분과 분노였고, 하나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는 형과 함께 3·15마산데모에 참여했으며 실종되었다. 마산데모의 혼란이 차차 가라앉고 실종신고자들의 소재가 모두 확인되었지만 김군의 행방은 알 수 없었다. 남원에서 아들의 실종소식을 듣고 달려온 어머니 권찬주 여사는 낯선 마산거리를 헤매며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아들의 행방을 수소문했다. 거의 미쳐지경이 된 어머니는 서울에서 내려온 조사단에게도 호소, 「경찰이 시체를 시청 뒤 저수지에 버렸다」는 풍문에 따라 저수지 인양작업까지 벌였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다.

20여일간 마산시내를 헤매는 지이에 어느덧 「김주열 미스터리」는 마산시민의 머릿속에 깊이 새겨졌고, 김주열은 그 어머니의 정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한 낚시꾼의 낚시줄에 걸려, 눈에는 철물이 밝힌 참혹한 모습으로 중앙부두 앞바다에 나타나, 마산시민의 가슴에 커다란 불을 놓았다.

이렇게 4·19의 도화선이 된 김 주열의 죽음에 보답이라도 하듯 전국에서는 죽음도 불사하고 온몸으로 싸워 결국 독재자 이승만의 명예 이한열이 목숨을 잃었다. 27일간의 사경을 헤매다 끝내 숨을 거두어 이땅의 민중들에게 또한번의 불길을 일으킨 그의죽음. 아직 4·19의 함성이, 10년전 광주의 함성과 절규와 충성과 피의 흔적이 기억속에서 잊혀지기도 전에 군부의 폭력이 실체를 드러냈던 것이다. 현재도 6·10의 최루탄매운 연기가 몸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는것 같아 우리는 마음놓고 실컷 웃을수가 없다.

TV화면에 음흉한 미소띠고 마치 4·19의 영령들과 이한열의 혼을 비웃고 있는 듯 두 손을 번쩍 치켜들고 서있는 3인의 모습에 참교육 외치며 거리로 나선 선생님들에게 가하는 무차별적인 폭력에,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 생존권보장을 외치는 노동자들을 짐승처럼 짓밟고 지나가는 군화발과 방패에 절망하지만, 4·19의 영령들과 이한열의 혼이 이 오욕의 땅 구석구석에서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우리는 또 그날의 함성처럼 모여 한몸으로 역사의 현장에 우뚝 서 그날을 지켜야 하고 새날을 맞이해야 한다.

〈대학원 영문학과 석사과정〉

학술정보

■90년대 민주 사회를 향한 기획 강연회

중앙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에서는 4·19및 광주민중항쟁 1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사회 정치지배구조와 민족민주운동」이란 주제로 4월 17일, 18일 양일간 중앙대 본관대회의실에서 기획 강연회를 개최한다.

△4월 17일(화) 오후 1시~6시30분:

1. 정계개편과 보수대연합의 성격—고성국(고려대 강사)
2. 진보정당건설의 정치적 의의와 전망—정태용(진보정당준비모임 정책실장)
3. 민주적 제도정당의 위상과 야권통합의 전망—이해찬(평민당국회의원)

△4월 18일(수) 오후 1시~5시:

1. 제야운동권의 대응전략과 조직과제—이범영(민주화운동청년연합의장)
2. 정치 경제정세와 노동운동—이목희(노동운동가)

■제7기 공해추방, 반핵평화를 위한 「배움마당」

공해추방운동연합(이하 공추련)에서는 「공해없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오는4월24일부터 5월27일까지(매주화·금, 오후7시20분부터)향린교회에서 제7기 공해추방, 반핵평화를 위한 「배움마당」을 개설한다.

이번 「배움마당」은 한반도의 환경오염및 공해문제의 심각성과 아울러 생존과 평화를 위협하는 핵문제에 대한 실천적 인식의 자리가 될것이다.

△4월 24일(화) 공해, 어떻게 불렀인가—최열(공추련 공동의장)

△4월 27일(금):수질, 대기오염과 인간생활—장원교수(대전대·환경공학), 사례발표—박길래(상봉동 공해대책위원장)

△5월 1일(화):농촌현실과 농약공해—김영원(한살림 생산자협의회 회장), 사례발표—김영식(가평골프장주민대책위원)

△5월 4일(금):산업재해와 직업병—양길승(노동과 건강연구회 공동대표)

△5월 8일(화):환경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권숙표(연세대 명예교수)

△5월 11일(금):공해의 정치경제학—최재현교수(서강대·사회학)

△5월 15일(화):한반도의 핵과 민족의 생존—조성우(평화연구소 소장), 슬라이드상영 (파괴이냐 생존이냐)

△5월 18일(금):핵발전소는 지금?—김원식(공추련 지도위원), 비디오상영(반핵발전소 I)

△5월 22일(화):공해, 핵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해—안병옥(공추련 조직부장)

△5월 26·27일(토·일):죽음의 문화, 삶의 문화—임진택(연출가), 비디오상영(미나마따의 교훈)

참가비는 2만원이며 문의는 공추련교육부(744—4549, 743—8840)

■생활속의 여성을 위한 교양강좌

서울민주·통일 민중운동연합 북부지역위원회에서는 오는 4월24일부터 6월1일까지(매주화·금, 오후 7시30분부터)생활속의 여성을 위한 제3기 여성교실을 개설한다.

이번 여성교실은 여성들의 올바른 사회참여의 길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으로, 각계각층의 여성들과 함께 우리사회의 전반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여성대중의 자주성과 민주적 제권리를 찾아나가기 위한 실천적 인식의 자리가 될것이다.

△4월 22일(화):여성운동과 평화—이우정(전 한국여성단체연합 회장)

△4월 27일(금):여성문제의 본질과 과제—이영자교수(성심여대·사회학)

△5월 1일(화):현장의 소리—수미다 노동조합

△5월 4일(금):일하는 여성과 탁아입법—김경태(지역사회탁아소연합 회장)

△5월 8일(화):작가와의 만남—김남주

△ 5월 11일(금):광주항쟁 10주년을 맞으며—전계량(5·18광주항쟁 유족회장)

△5월 15일(화):억울린자의 어머니가 되어—이오순(고(故) 송광영열사 어머니)

△5월 18일(금):해방이후 현대사 개설—정해구(현대사연구가)

△5월 22일(화):주거값과 전세값폭등—소준섭(빈민운동가)

△5월 25일(금):핵과 민족의 생존—최열(공해추방운동연합 공동의장)

△5월 29일(화):참교육과 바른사회—이수호(전교조 사무처장)

△6월 1일(금):어떻게 살것인가—인재근(여성교실 실장)

접수기간은 4월 9일부터 4월 24일까지고 참여성금은 2만원, 문의는 여성교실 교무부(962—8236)

이 책

지배 이데올로기의 극복과 새로운 역사관의 정립

근래 들어 일본의 교과서 왜곡문제, 참교육 실현을 위한 전교조 활동 등과 관련해 기존의 역사교과서가 소수지배세력및 기득권 계층의 이해관계로 오용되어왔던 것으로 부터 벗어나 역사를 바르게 보고자 하는 노력들이 보여지고 있다.

「바로보는 우리역사 (거름펴냄, 1990)」와 「한국사 강의(한울아카데미펴냄, 1989)」가 그 예인데, 두 책 모두 소수 지배계급이나 왕조들의 변천사 중심으로 기술되어온 기존의 우리역사를 진정한 역사의 주체이며 원동력인 민중의 생활사를 중심으로 한 「민중사관」에 입각하여 서술하고 있다.

「바로보는 우리역사」는 고등학교 교과서와 비슷한 형식으로 각 시대마다의 정치·사회·문화 등에 대해 개괄적으로 기술하는 통사체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원시시대 부터 고대·근대·현대의 87년 6월항쟁 전까지 다루고 있는데 기존의 역사서와는 달리 예술품이나 유적지등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단지 고고학적·미적 가치만을 논하거나 설화·내력 등을 서술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속에 숨겨져 있는 지배 이데올로기를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이 엿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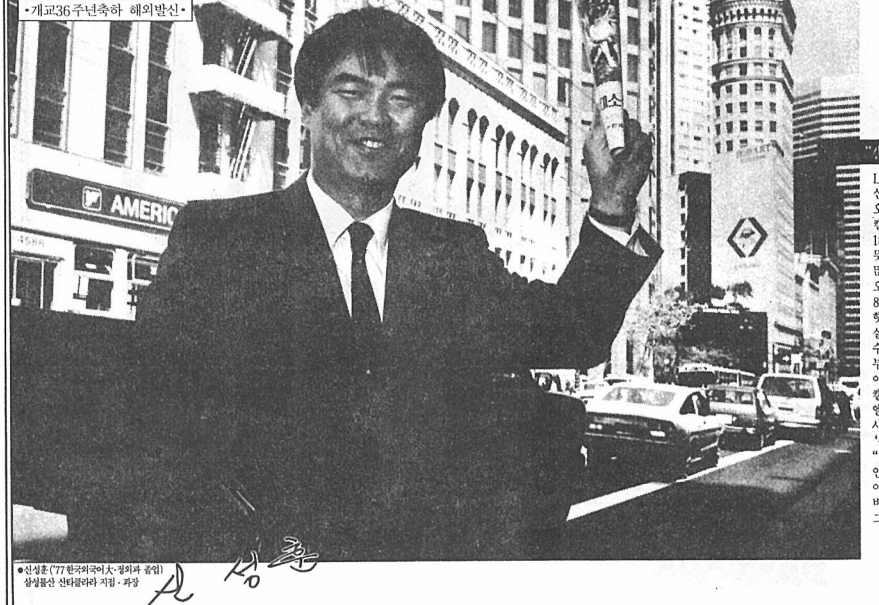
예를 들어 「에밀레종」이나 「무영탑」등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지배 세력들은 종교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거나 국가의 위신및 명분을 내세움으로 해서, 노동력 착취 및 인권유린의 수단으로 사용했던 점들을 위의 책은 지적하고 있다. 어린아이의 사무친 원망의 소리인듯 「에밀레 에밀레」하고 울렸다는 「에밀레 종」에 관한 설화는 종교를 빙자하여 어린 생명까지 빼앗아 가는 봉건지배층의 약탈을 원망·비판한 것이었다.

「한국사 강의」는 한국역사연구회에서 대학교재를 목적으로 펴낸 강좌체 형식의 책으로써, 우리의 역사를 크게 「고대·중세」, 「근대·현대」등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각 시대 마다의 정치·사회·문화등에 대해 비교적 폭넓게 서술하고 있다. 또한 각 시기마다의 사건들 중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거나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고조선」, 「임나일본부설」, 「신탁통치문제」등에 관해서는 「고려사」, 「삼국사기」, 「만기요람」등의 자료에서 발췌내용이 첨가된 보설을 다루고 있다. 특히 15장에서는 북한 현대사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8·15부터 80년대 까지의 사회주의 건설과정및 발전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은 특이할만하다.

아쉬움으로 남는 것이 있다면, 「바로보는 우리역사」의 경우 다방면에 걸친 통사적인 기술속에 각시기 마다의 기저에 있는 흐름에 대해 폭 넓은 이해를 주기에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과 「한국사강의」는 깊이 있는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문화·예술방면에 대한 언급이 소홀하다는 점이 있다.

역사란 올바른 가치관이나 역사정신을 제공해 주는 역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써 우리가 현재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 방향성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대화이다』라고 한 어느 사학자의 말처럼 과거의 사실들을 서술하는 일은 현재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를 주어야 한다. 즉, 특정 계층에 의해 왜곡되어지지 않는 객관적이며 올바른 관점에 의한 역사의 서술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학술부〉



●신성훈('77 한국외국어大·정외과 졸업)
삼성물산 산타클라라 지점 · 과장

미네르바동산에 심은 꿈,
실리콘 밸리에서 꽃피웁니다.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에서 외대의 시드 여섯번째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L.A에서 500km 떨어진 반도체기술의 요람, 산타클라라 '실리콘 밸리'의 아침은 오렌지와 포도를 맛나게 익히는 캘리포니아의 햇살, 바로 그것이다. 1848년 부터 시작된 골드러쉬로 콜럼부스의 꿈이 뜻밖에 서쪽대륙에서 연출되면서 생긴 많은 도시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오전 7시에 기상하는 신성훈 동문(35세·삼성물산)은 8살난 아들 '지용' 과 이른 아침 캘리포니아의 햇살을 받으며 조깅을 한다. 실리콘 밸리중에서도 다운타운이란 수 있는 수이트101 번가의 사무실에 도착하면 정확히 8시 5분. 부임이후 이 출근시간의 오차는 불과 1~2분이다. 이웃한 '유레카' 시(市)의 지명이 상징하듯 캘리포니아는 여전히 꿈의 땅이다. 엘도라도의 야망들은 이미 오래전의 폐광과 함께 사라졌지만, 오렌지와 반도체로 '유레카' 의 외침은 계속되고 있다. "미국을 있게하는 버클리와 스탠포드 대학이 인접해 연구기능이 매우 강합니다. 이 풍토에 우리 외대인, 아니 '홀산스' 인의 비즈니스로 첨단산업의 꽃을 피우는 일을 합니다." 그 자신 이문 캠퍼스시절부터 별러온 '커머셜 디플로매트' 로서의 꿈도 이곳에서 '유레카' 를 외치고 있는 셈이다. 부임 초기, 이곳의 한 미국회사가 수출신용장에 서명까지 하고는 필드업무에 약해 발생한 문제를 단시간에 해결해준 경험이 있는데, 그후로는 국제 비즈니스건마다 '샘성' 의 '매니저 신' 을 찾는 고객이 되어 버렸다. "한국 외국어대 나왔습니다라는 말은 곧 비자요, 크레디트 쉬트가 되어버렸습니다. 외대인이라면 세계 모든 언어를 전공한 셈이지요." 남미나 아프리카에서조차 동문들의 '손쉬운 연락과 협조' 가 그것을 단적으로 상징한다. 개교 36주년 기념일인 오늘은 마침 버클리에 유학중인 후배와 약속이 있는 날이다. "미네르바 동산에 배인 숱한 이야기들을 안주삼아 우리 축제의 그날처럼 대화할 예정이지요." 1990년 4월 20일, 캘리포니아의 석양을 몸에 마시며 실리콘 밸리에는 두 동문의 힘찬 노래 한자리 흐를 것이다.

"여기 한 줄기 동방의 빛 ~
세계를 흐름하는 젊은 가슴……"

인재와 첨단기술의 三星

인터뷰

미완의 4월혁명

"역사의 거울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오는 4월19일은 이승만 독재정권에 항거한 선열들이 조국의 자주·민주·통일을 위한 제단에 성난 피를 뿌리며 산화해간지 30주년이 되는 날이다. 그러나 지난 역사속에서의 4월혁명은 군부독재세력과 일부 변절자들에 의해 철저히 왜곡·굴절되어져왔다. 이에 본보에서는 이와같은 역사의 왜곡을 바로잡고 4월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되살리기 위해 출범한 「4월혁명연구소(소장 김진균)」를 찾아 연구위원장 황건씨를 만나보았다. 〈편집자〉

▲해방이후 남한에 수립된 정부는 자유와 민주에 대한 온 국민의 열망을 짓밟은 반민족적·반민주적 정부였고 국민을 배신한 독재정권은 결국 4월혁명으로 붕괴되었습니다. 4월혁명의 의의를 오늘에 되살린다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4월혁명은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독재를 종식시키고 민주주의 체제를 확립한 학생·시민·민중의 연합혁명이었습니다. 또한 4월혁명의 정신은 한일협정반대, 유신철폐, 부마시민항쟁, 광주민중항쟁등 이후 전개되는 모든 민족·민주운동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4월혁명이후 학생운동 내부에서는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며 분리되는 현상을 나타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학생들은 혁명이 미흡하지만 일단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와 함께 정치적 개혁을 과도정부나 민주당에 맡기고 학생 본분으로 돌아가자는 의견과 조국과 민족이 빈곤과 무지에서 벗어나려면 혁명의 완수와 국민계몽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지닌 국민계몽대, 그리고 혁명의 완수는 결과진 조국의 하나됨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민족통일연맹(이하 민통련)의 입장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선생님께서는 4월혁명 이후 서울대 민통련 조직위원장을 지내셨는데 민통련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조직이었습니가.

—당시 민통련은 결성준비과정까지 합치면 전국 20~30개 대학에 존재한 거대한 학생운동조직이었습니다. 민통련은 4월혁명을 좌절된 것으로 평가하고 혁명의 완수를 위해서는 민족의 모순을 해결하고 통일을 이루는 것을 선차적인 과제로 보았습니다. 이후 민통련은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을 결성하는 자리에서 남북학생회담을 제의하였고 이후 한미경제행정협정반대운동, 반공법·데모규제법반대운동을 통하여 조직을 강화하고 대중적기반을 획득하여 통일논의의 활성화를 이루어냈습니다.

▲4월혁명의 완성을 위한 작업으로 활발히 전개되다가 5·16쿠데타로 좌절되면서 한동안 공백기를 맞던 통일운동이 오늘날 다시 제기되면서 대중적인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당시와 오늘날 통일운동의 차이점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시 제기됐던 통일문제중 기본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간헐적이지만 정부를 통한 부분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은 당시보다 통일운동의 여건이 좋아졌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반면 그후 30년동안 남과 북이 서로 다르게 발전하면서 체제의 이질화가 확대·재생산되어 저 남한은 사회·경제적으로 계급의 분화가 심화되었고 북한은 독자적인 체제를 구성하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악조건하에서도 남한사회의 통일운동세력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또한 통일운동이론이 질적으로 발전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사실입니다.

▲민중운동의 발전과 더불어 통일운동의 열기를 고조시킨 4월혁명은 우리역사에서 큰 의미를 차지한다고 봅니다. 이런 의미에서, 「4월혁명연구소」의 설립 배경과 운영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4월혁명연구소」는 지난 1988년 6월에 설립되었는데 당시 4월혁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고 지금까지 그 정신을 기리며 사회 각계각층에서 모범적으로 생활하은 동지들을 중심으로 4월혁명 정신의 계승·발전및 현단계 민족·민주운동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창립되었습니다. 또한 4월혁명을 중심으로 근대부터 오늘까지 정치, 사회, 문화의 역사상황방향을 연구하며 민족통일로 나아가는 길을 모색할 것입니다. 본 연구소는 약 60여명의 회원으로 이루어졌으며 운영자금은 회원들의 회비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4월혁명 30주년을 맞이하여 혁명의 의미를 오늘에 되살리기 위해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행사는 없습니까.

—금번 4월혁명 30주년을 맞이하여 저희 연구소를 주축으로 제야민주인사들과 함께 「4월혁명 30주년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기념사업의 성격에서 탈피하여 현시기 모든 민중운동진영에 도움을 줄수 있도록 기획되어졌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으로는 우선 4월혁명 30주년과 관련된 자료집과 논문집을 발간하며 그것을 기초로하여 4월18일 연세대 백주년기념관에서 학술발표회를 가질예정입니다. 또 4월혁명 정신의 현재적 계승과 민족민주운동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사월혁명상」을 제정하였습니다. 올해의 시상대상자는 권한주(김주열 모친), 이소선(전태일 모친), 장준하씨로 선정되었습니다.

—끝으로 4월혁명 세대는 역사발전의 원동력임이 분명하나 변절시비로 인하여 지울수없는 오점을 남긴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에대한 선생님의 견해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같은 4월혁명 세대의 사람으로서 꼭을하기가 무척 거북합니다. 하지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4월혁명의 성공을 가로막고 이를 짓밟은 것은 역대의 독재정권만은 아니라는 것, 바로 독재타도에 앞장서서 생명을 걸었던 우리 동지였고 친구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젊은 세대는 우리들을 거울삼아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월혁명은 완결된 것이 아니며 지금이순간에도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민족통일이 달성되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야 할 「미완의 혁명」이라는 사실을 모두의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합명식 기자〉

『4월의 혁명정신은 오늘도 이어져야 합니다』

해 설

전대협 총회를 계기로 바라본 올 학생운동의 방향과 내용

「침체기」딛고 반미 자주화로…

상반기 장기 집권 음모 및 민자당 분쇄

하반기 수입개방저지, 주한미군철수등

제4회 전대협총회가 제4기전대협의장 선출 투쟁노선채택등의 안건으로 지난4월10일(화)부터 11일(수)까지 양일간 경희대크라운관에서 열렸다.

1백71개의 전체 전대협 가입학교중 1백11개대학의 대표자가 참가한 이번 총회에서 전대협은 당면투쟁의 목표로 「반민자당·반미투쟁」을 결의하고 이에 따른 민자당의 본질규명, 정치적·조직적과제설정, 4·5월 투쟁기조등을 토의, 최종채택하였다.

10일오후8시30분부터 11일 오전6시까지 10여시간에 걸친 투쟁노선토의는 전대협 중앙위원회의 상정안에 대한 서총련 남부지구 서울대총학생회장 김주옥군의 이견에 대한 비교후 중앙위안에 대한 찬반투표로 진행되었다.

찬반투표결과 중앙위안은 참가 1백17명의 대의원중 87명이 찬성, 최종확정되었다.

중앙위안은 민자당의 출현배경에 대해 「민중의 정치적성장에 의해 미국의 의도가 한국에 더이상 통용되지 않고, 민족민주운동이 대중성을 확보함에 따라 미국과 노태우정권의 권력안정을 위해 보수야당(민주당)과의 합당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장기집권화와 영구분단의도의 노골화(김영삼 방소, 북방정책)와 함께 전노협탄압 등 민중운동탄압을 동반하고 있다고 파악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전대협의 올 투쟁은 장기집권음모분쇄 및 민자당 분쇄투쟁으로 발전, 미국의 내정간섭 저지, 영구분열음모저지 투쟁에 나설 것으로 밝히고 있다.

한편 장기적 투쟁노선은 첫째를 반파쇼민주화투쟁으로 장기집권의도 저지투쟁으로 둘째를 반미자주화투쟁으로 민자당 배후조정 미국반대투쟁에 나서 수입개방 저지·주한미군철수등으로 구체화하고, 이후 이 두 가지를 유기적으로 구성, 변화하는 국제정세속에서 자주·민주·통일역량의 강화로 민자당 저지로까지 발전시킬 것이라고 전대협은 표명하고 있다.

또한, 당면한 4·5월 투쟁에 대해서는 첫째 4·19투쟁속에서 국민연합과 결합 연대투쟁에 나서고 메이데이 투쟁에서 5·18투쟁으로 발전시켜 민중운동 생존권 투쟁과 노동운동 사수투쟁을 전형 민자당의 본질을 폭로해 내는 것과 둘째 모든민중세력의 정치적 진출속에서 전대협은 목적의식적인 결합, 투쟁의 과고를 높인후 투개의 한국정책을 저지하는 투쟁으로 나서는 것을 올 투쟁노선으로 발표하였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조국통일 논의의 활성화 차원에서, 대북창구의 전면개방, 자유왕래, 북한바로알기운동, 국보법철폐투쟁등을 광범위하게 전행시킬 것이라 한다.

이번 전대협 총회에서 특이한 것은, 이전으로 제출된 서울대 총학생회장 김주옥군의 「민중의 기본권 쟁취」와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목적하에 「노학연대」와 「반파쇼 민자당 독재분쇄 투쟁」을 올 투쟁목표로 하자는 안이 전체대의원 표결에서 부결되었으나, 그 내용은 민자당 분쇄 투쟁에 삽입하는 형태로 채택되었다는 점이라 할수있다. 이러한 전대협 총회결의안은 91년 저지제및 국회의원 선거, 92년 대통령선거등의 중차대한 정치적 사안들이 산적에 있음을 볼때,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즉, 91년 92년을 내다보았을 때 제4기 전대협이 「반미·반민자당투쟁」에 주력한다는 것은 이후 반미자주화및 자주통일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보수야당의 합당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장기집권화와 영구분단의도의 노골화(김영삼 방소, 북방정책)와 함께 전노협탄압 등 민중운동탄압을 동반하고 있다고 파악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전대협의 올 투쟁은 장기집권음모분쇄 및 민자당 분쇄투쟁으로 발전, 미국의 내정간섭 저지, 영구분열음모저지 투쟁에 나설 것으로 밝히고 있다.

한편 장기적 투쟁노선은 첫째를 반파쇼민주화투쟁으로 둘째를 반미자주화투쟁으로 민자당 배후조정 미국반대투쟁에 나서 수입개방 저지·주한미군철수등으로 구체화하고, 이후 이 두 가지를 유기적으로 구성, 변화하는 국제정세속에서 자주·민주·통일역량의 강화로 민자당 저지로까지 발전시킬 것이라고 전대협은 표명하고 있다.

개교 특집

외대생이라면 이 정도는 알고있어야겠지요…

교훈 — 진리 평화 창조

적어도 우리학교의 교훈이 「진리·평화·창조」임을 모르는 외대생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곰곰히 되씹어본 이는 얼마나 있을까요?

고결한 상아탑 속의 현실과는 괴리된 「진리」, 진보와 변화를 두려워하는 현상유지적이고 소극적인 「평화」, 그리고 우리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머리속과 입속에만 맴도는 어느 관념적 시인의 「창조」로 알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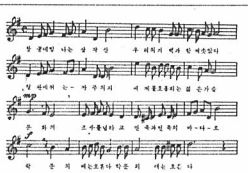
이제는 우리의 역사와 민족앞에 거짓없는 「진리」, 왜곡되고 굴절되어진 현실을 바로잡고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 것이라면 되찾아야 할 적극적인 「평화」, 그리고 진정 이땅에 사는 우리 모든 형제들이 더나은 사회로 나아가는데 보탬이 되는 눈물과 땀의 「창조」이어야 하지않을까요?

교표

많은 외대생들이 이런 말들을 합니다. 『우리학교 교표는 너무 단순한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분들께 그러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하고 물으면 역시 대답은 『글쎄요…』입니다.

곰곰히 보면 아시겠지만 바로 「외대」 이 두 글자의 앞자인 「ㅇ」과 「ㄷ」의 각각의 상징입니다. 외국어를 주로하는 저희 학교에서 봉건적 권위의식과 외세침략의 산물인 한자와 영자를 과감히 배격하고 우리 글 한글만으로 도안된 교표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은 대학인에게 있어 가장 필요한 민족적 주체의식을 나타내기 위한 노력의 상징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속에는 세계속에 참된 진리·평화·창조를 위해 일하는「ㅇ」 주춧돌 같은 외대인「ㄷ」을 상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가



교가… 외대에 들어온지 얼마 안된 신입생은 제외한다 해도 그외 고학년 여러분 중에 교가를 끝까지 부를 수 있는 분은 얼마나 있을까요?

「혈관에 뛰는 자주의 피」, 불의와 거짓만이 강요되고 판을 치는 이 사회에서 진정 대학인의 피속엔 어느 장사상에도 흔들리지 않을 자주의 피가 흘러야겠지요. 또한 그것이 저 혼자만 앞서가는 독단이 아닌, 그리고 역사를 저버리지 않는 「학문의 배」가 「민족과 민족의 바다로」 함께하길 노래하고 있습니다.

민족을 사랑하는 외대인 여러분 우리의 교가 끝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새시대의 역사창조」의 그날을 위해 목청껏 이 좋은 교가한 번 다 함께 불러보는 건 어떨까요.

상징동물

『비둘기인 제가 여러분의 상징이 된것은 외대의 특성상 외국어를 공부한 뒤 혹시라도 마음까지 외국으로 보낼까 두려워서이랍니다. 왜냐구요? 아시겠지만 제게는 어디를 가더라도 반드시 집으로 돌아오는 「귀소본능」이 있지요. 바로, 필요에 의해 외국어를 배울지라도 언제나 그 정신은 우리의 조국 한반도를 향하길 바라는 마음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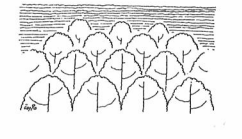
또 제게는 사람들이 붙여준 「평화」의 이미지가 있지요. 하지만, 제가 요즘 이문법과 왕산골을 날으며 바라본 외대생여러분은 진정한 평화가 무언지 잊은 것 같다는 생각이 제 세머리(?)로도 느껴지곤 한답니다. 사실 저는 평화가 없다면 평화를 되찾기 위해 용감하게 싸울 수 있는 새랍니다. 연약한, 빵조각이나 줍는 외대 비둘기는 되지 않겠어요. 실천하는 비둘기, 그게 진정 여러분을 상징하는 제 모습이고 싶군요.』

교화

『우선 섬섬하단 말부터 해야겠습니다. 정말 섬섬한게 두루두루 한두가지가 아니에요. 세상에 내가 외대를 상징하는 꽃이라는 걸 아는 분이 거의 없더군요. 바로 외대를 상징하는 제 이름은 장미 입니다. 조금 놀라셨나요?

저는 10여년전 외대인들의 응모를 통하여 선택된 꽃이지요. 하지만 이문동과 왕산을 둘러봐도 선뜻 장미나무 한그루 쉽게 눈에 띄지 않으니, 제 스스로 부끄러운 점도 있어요. 사실 벗꽃이 지난 날 제국주의 일본의 국화라면 저역시 제3세계 침략의 본국인 영국의 국화이니까요. 외대니까 외국적인 꽃이 좋다고요? 저는 뒷줄에 서도 괜찮으니 좀더 저보다 나은 외대다운 꽃은 없을까요?』

상징색



바로 우리학교의 상징색은 「녹색」입니다. 물론 그것이 주는 의미는 매우 크고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첫번째를 꼽으라면 바로 겨울에도 늘 푸른 상록의 의미를 들수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늘 부르는 노래중에 이런 가사가 담긴 노래가 있지요. 「저 들에 푸르른 솔잎을 보라… 거치른 들판에 솔잎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대학인에게, 우리 젊은이에게 누구나 바라는 소망이라면 다름 아닌 거치른 들판에 상록수같은 사람이 되어주길 바라는 것이겠지요.

초록은 물론, 우리 눈에 보이는 그 푸른 초록이란 색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외대인이 지녀야 할 초록은 이 사회, 힘빗고 버림받은 곳이 있다면, 우리의 초록을 아낌없이 나누어도 늘 푸른 정의와 용기가 샘솟는 초록이 되어야겠지요.

인터뷰

"요즘학생이 고칠건 더 많아"

—본교 최장기 근속직원 진나수씨를 만나

▲본교 직원중 최장기 근속자 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언제부터 외대에서 근무하셨으며 그당시 외대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외대가 종로에서 옮겨와 이문동에 자리잡기 시작한지 9년쯤 뒤인 66년3월10일 처음 외대에 근무하게 됐습니다. 그땐 학교부지도 지금보다 적었고 건물도 본관하고 학생회관밖에 없었지요.

▲건물이 두채밖에 되지 않았다면 외대의 모습이 지금과는 꽤 큰 차이가 있었겠군요?

—예, 그땐 도서관 자리에 동산이 있었어요. 또 운동장이 본관 아래쪽으로 지금보다 5m 정도 낮은 위치에 있어 도서관 공사를 할 때 그 동산에서 퍼낸 흙으로 운동장을 메꿨지요. 그것도 모자라 안기부(당시 중앙정보부)를 지을때 짰던 흙까지 가져다가 운동장을 메꾸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문과학관 뒤 후문쪽으론 돌방(웅덩이)이 있었습니다. 그곳이 원래는 옛날부터 이문동 주민들의 빨래터였는데 인문과학관을 지으며 메꾸게 됐지요.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물이 얼지않는 곳이라 여러사람들이 이용하던 곳이었는데….

▲그러면 당시엔 학내에서 이문동 주민들과 자주 접해보셨겠군요. 어떤 재미있는 일화라도 있으면 말씀해주시지요.

—많아요. 그땐 시청각건물에서 후문쪽으론 장미밭이었는데, 그래서 장미를 꺾어가는 주민들 때문에 밤에는 보초를 서느라고 꽤 애를 먹곤 했습니다.

▲66년도에 부임하셨다면 지금부터 24년전이 됩니다. 그때 외대생은 지금 외대생과 어떤 면에서 차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별다른 큰 차이점은 느끼지 못하겠지만 사소한 점에서는 오히려 요즘 학생들이 고쳐야할 게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미네르바 동산에서 술마시고 (학생들이 교내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한 것은 10여년 전부터임) 술병을 깬다거나, 강의실에 침을 뱉는다거나 하는 것들 입니다. 예전 학생들보다 남을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늘어가고 있어요. 물론 일부 학생들에 한정된 얘기가 될수도 있겠지만….

▲당시에도 집회나 시위가 벌어졌을 텐데….

—물론이죠, 지금 시위는 그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박정권때일 겁니다. 지금부터 15년 전이니까. 유신반대 데모가 한번 벌어지면 보통 1주일 정도까지 계속 되곤 했습니다. 정말에서 헬기가지 띄워서 막을 정도였으니까요.

> 갈수록 이기적으로 변하는 대학인들에게, 『외대사람은 다른 사람의 편의를 조금만 생각해주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말하는 진나수(66세)씨.

그때 교수님들이 고생 많이 하셨지요. 작고하신 박슬옵 학장은 학생들이 벌써 이문동고개(청량리 방면)육교있는 곳까지 나갔는데도 따라 달려가서 학생들을 막곤하셨습니다. 어쨌든 전에는 교수·직원들이 시위를 말리는 모습을 자주 볼수 있었어요. 그런다고 학생들이 물러서거나 하진 않았지만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외대생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그때 교수님들이 고생 많이 하셨지요. 작고하신 박슬옵 학장은 학생들이 벌써 이문동고개(청량리 방면)육교있는 곳까지 나갔는데도 따라 달려가서 학생들을 막곤하셨습니다. 어쨌든 전에는 교수·직원들이 시위를 말리는 모습을 자주 볼수 있었어요. 그런다고 학생들이 물러서거나 하진 않았지만 말입니다.

—뭐 커다란 것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나무를 꺾지 않게 주의하는 거나 학교 기물을 내것이라 생각하고 아끼는 것, 또 자기 편의만 찾다보니까 다른사람한테 피해를 주는데 그런것을 삼가해 달라는 그 정도지요.

외대사랑은 이런 작은 일에서 부터 나오는게 아니겠습니까? 〈임재권기자〉

> **일본어고전문법, 매스커뮤니케이션학, 환경생태론…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학문을 공부하고, 잘 알고 있는 우리지만 뜻밖에도 우리학교의 교훈을 물으면 선뜻 대답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본보에서는 개교36주년을 맞아 우리 외대생의 의식개혁에 있어 자그마한 외대사랑에서 출발, 자주와 통일의 시대에 올바른 대학인으로서의 의식전환을 도울 특집을 마련해 보았다.** 〈편집자〉

개교 36주년 기념 설문조사

○주관:외대학보

○설문지 회수량:이문·왕산 포함 4백1매

○설문기간:4월11일~4월13일

설문조사 외대, 얼마나 아십니까?

본보는 개교36주년을 맞아 외대생들의 외대인식상황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지난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총7개항의 설문조사를 실시, 배포된 4백80여부중 수거된 4백1부를 정리하게 되었다. 조사결과 전체적으로 외대생들은 외대에 대해 바로 알고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를 보면 교훈을 바르쓴 학생은 3백15명(78.6%)이었고 교화인 「장미」를 옳게 적은 학생은 4백1명중 「5명(1.2%)에 불과, 외대생이 외대를 잘 모르고 있다는 말을 실감나게했다. 「교화」난에 가장 많이 적힌 꽃은 「벚꽃」으로 51명이 나 되었으며 다음 「개나리」(42명) 「목련」(13명) 「진달래」(8명)순으로 집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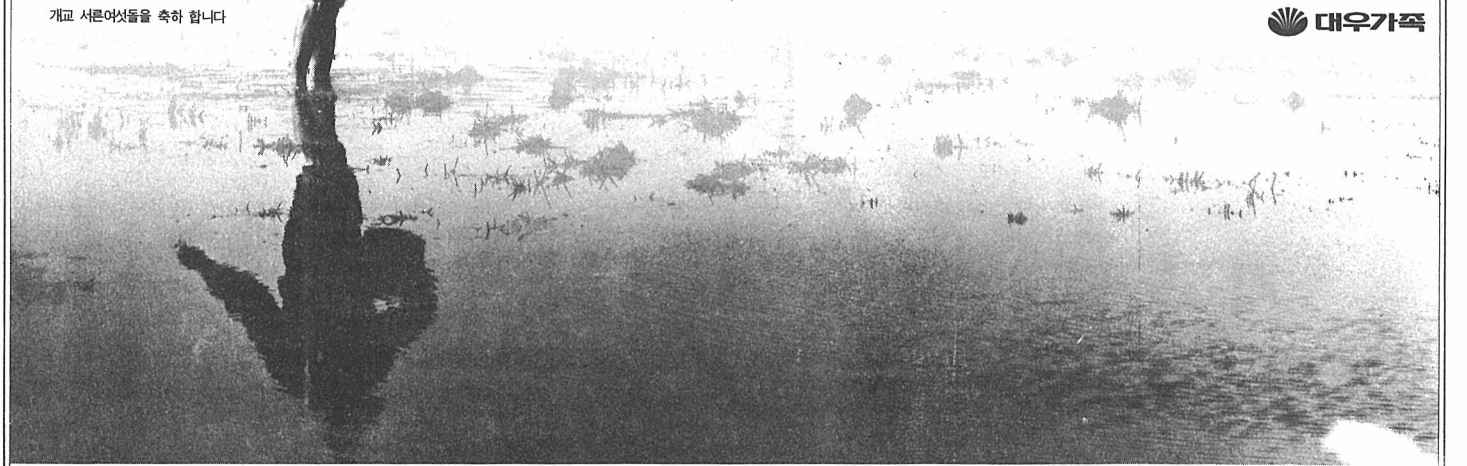
외대 교표가 뜻하는 바를 묻는 난에는 「외대」에서 「ㅇ」을 따 지구를 나타내고, 「ㄷ」을 따 외대의 교훈인 진리·평화·창조를 상징함과 아울러 신념의 문을 여는 열쇠를 표시하며, 「ㄷ」을 동그라미의 중심에 두어 그 세가지를 인류생활의 축으로 삼게한다는 뜻을 비교적 정확히 기입한 학생은 59명(14.7%)이었고 1백73명(43.1%)이 이와 비슷한 답을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교가를 끝까지 부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88명(21.9%)만이 그렇다고 대답, 대다수의 학생이 교가를 부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입학식 폐지등 학내에서 교가를 부를 수 있는 계기들이 점차 줄어들기 때문인것으로 풀이된다. 또 개교기념일은 86.3%가 4월20일로 정확히 대답했으나 올해가 개교 36주년임을 아는 학생은 52.6%에 불과했다.

「가장 자랑스러운 외대인」을 묻는 난에는 평양청년학생축전 남한측 대표인 임수경(서학·불어4)양을 적은 학생이 64명으로 가장 많아 외대생들의 조국통일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현 상공무장관인 박필수전 총장도 20명이나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박필수전 총장을 적은 이유로는 「정권욕이 강해서」 「목적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라고 들어 결과적으로 박필수 전 총장은 「가장 부끄러운 선비」가 되고 말았다.

(단위%)

〈설문조사 결과〉



"오늘, 우리가 한알의 씨앗을 뿌리는 뜻은…"

새싹이 파릇파릇 돋아나고
겨우내 얼었던 냇물이 녹아 졸졸졸 흐르면,
우리들의 어머니는 밤새도 황금빛 생각들 썻으십니다.
남쪽으로부터 꽃소식이 오고 봄빛이 완연해지면,
들녘의 논에 우리들의 부모는 또한 볍씨를 뿌립니다.

광범하지만 건강하고 진실하게
생산자(生産者)의 몫을 다하는 부모들의 삶—
빽빽한 쇄들 사이에서 공부를 하고,
지구촌을 무대로 밤과 낮을 바꿔가며 일하는
바로 우리, 아들 딸들의 삶에 닿아있습니다.

신과 산, 논과 논, 밭과 밭, 골과 골…

이렇게 이땅의 곳곳에서 우리의 부모들이
한알의 씨앗을 뿌리는 뜻은,
서로 아끼며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일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 봄에, 우리들의 땅에서 모든살아있는 하며
뿌리고, 가꾸고, 거두고, 나누는 일을 소중히 하는
많은 이들과 함께—

대우가 있습니다.

대우가 있습니다㈜

기동취재

전국경찰서 방문대회를 아십니까

—전교조, 「참교육실현을 위한 온나라 걷기대회」 현지 취재

『1만4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조합원과 전교조를 지지하는 40만 교직원의 참교육 실현 의지를 한반도 곳곳에 확산시키고, 단일노동조합으로서의 전국적인 일체감을 보다 굳건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로서 16일째를 맞고 있는 「참교육 실현을 위한 전교조 온나라 걷기 대회」의 의의에 답하는 홍광석(42·전남곡성고) 해직교사의 말이다.

전교조 창립 1주년이 되는 5월28일 서울 입성을 목표로 전국 1백22개의 시·도·군을 경유, 도보행진 1천3백㎞, 차량이동 2천5백㎞ 등 총연장 3천8백㎞를 행진하는 「온나라 걷기대회」는 4월3일 한라산 출정식을 가졌다.

57박 58일 동안 진행되는 이번 「걷기대회」는 전 구간을 완주하는 장용수(30·월계중)·박병배(34·양동중)·강구용(33·석관고)·이돈집(28·성서중)·전기택(30·서울제고) 해직교사 등 본조대원 5명을 포함하여 걷기에 참여하는 연인원이 5백여명으로 추산되었으나 각 지역 시민·학생·민주단체들이 대거 참여해 지금까지의 구간만 보더라도 당초 예상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보여진다.

4월4일 배편으로 목포항에 도착하자마자 「한발짝도 걷지 못한다」는 경찰측의 방침에 따라 전경 3개중대에 의해 본조대원 전원이 연행을 당함으로써 「끝없는 연행의 연속」은 시작되었다. 그러나 목포지회 해직교사들과 학생·시민들이 목포시가행진을 진행하는 동경찰은 어떤 방법으로든 진행되는 걷기 행렬을 막을 수 없었다.

한편 목포경찰서 안에서 연행된 교사들에 대한 폭행도 서슴없이 행해졌다. 이날 연행된 본조대원 박병배 교사는 『조사에 불응하자 머리를 끌고가 옷옷을 벗기고 심한 욕지거리를 하면서 보안계장이 열쇠장치로 가슴을 찍어 상처가 나기도 했습니다』라며 당시의 상황을 설명한다.

걷기대회를 원천 봉쇄할 수 있는 그 어떠한 법적인 구실도 찾지 못한 경찰측은 제주도에서 그랬던 것처럼 어쩔 수 없이 다음날 곧바로 풀어줄 수밖에 없었고 다시 무안을 향한 걷기 행렬은 계속되었다.

『무안에서 나주로의 걷기 행렬이 30여m도 나아가기 전에 본조 전기택대원을 포함한 8명의 교사들이 연행되자 「예정했던 도보행진의 원칙은 어떤 식으로든 지킨다」는 결의를 다지기 위해 새부적인 방법을 세웠습니다. 경찰이 본조대원의 연행에 촛점을 두는 이상 경찰들에 의해 처음부터 연행당하는 연행조, 추적을 최대한 교란시키기 위한 노출조, 도로가 봉쇄되면 산이나 들을 넘어서라도 계획된 거리를 걷는 완주조를 선생님들께 전교조를」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환영집회를 할 때는 너무도 감동적이었습니다』라고 덧붙인다.

▲4월8일 전교조 광주지부앞에서 시가행진을 하려던 남녀지회장 윤흥근(광주 동아여중)해직교사가 경찰에 의해 연행되고 있다.

4월7일 전교조 나주지회에서 출정식을 가진 걷기대회들은 경찰차가 나타나면 차를 타고 그들을 따돌린 다음 다시 걷는 방법으로 광주에 도착하여 걷기 복장과 깃발을 품 속에서 꺼내 갖추고 출정로를 행진하여 당시 조선대에서 열리던 「광주전남 민주연합결성대회」에 참가하려다 광주지부 해직교사 10명이 동부경찰서로 연행되었다. 그러나, 『정문에서 모두 연행된 줄로만 알았던 전교조 선생님들이 걷기대회 깃발을 앞세우며 갑자기 뒷산을 넘어 학교로 진입하는 모습은 너무도 당당해 보였습니다』라는 조선대 정악선(사학·2)군의 말처럼 「비밀조」로 편성된 5명의 교사들이 결성대회에 참가하여 시민과 학생들에게 열렬한 환호를 받기도 하였다.

다음날 광주지부 사무실에서 시가행진을 시도하던 본조대원 이돈집교사를 포함하여 6명의 교사가 서부경찰서로 연행되자만 서부·북부지회 조합원과 동부지회조합원이 차례로 합류, 1백여명의 교사·시민들이 전경저지선을 뚫고 망월동을 참배할 수 있었다.

이에 앞서 전남 동부경찰서에 연행된 10명의 교사들은 훈방조처를 받았으나 불법연행과 대학생 구타등 경찰서장의 사과를 받기 위해 면담을 요구하자 「백골단」 30여명을 동원, 당구 큐대로 머리를 구타하는 등 경찰서안 폭력이 다시금 자행되었다. 또한 김인주(37·광주중앙여고)해직교사를 비롯한 6명의 교사들을 「닭장차」에 태워 나주·영광간 도로에 1㎞ 간격으로 차례로 끌어내려 논두렁 물구덩이에 처박고서는 뒤따라 오는 경찰간부의 승용차에서는 「더 심하게 해라. 시원하다」며 웃는 등 가혹행위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망월동 참배를 마친 40여명의 교사들이 책임자 면담을 요구하며 연좌농성을 하자 경찰은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온 몸에 물을 끼얹고는 저를 포함 11명의 교사를 닭장차에 실어 화순군의 시골길에 끌어내리고 가버리기도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정병표(42·광주송원중)해직교사는 『이는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덧붙인다.

연행교사들에 대한 아무런 법적용도 하지 못한 채 즉각적인 훈방만을 되풀이 한 경찰은 불법연행이라는 현지여론이 빗발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쓰기도 했으니 전남 빌교에서 도보행진을 벌이던 7명의 교사들을 도로교통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불구속입건한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국 주요도로에 집회가 금지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는 집회가 아닌 평화행진을 했고 더구나 전국주요도로에도 속하지 않는 그 도로는 공사중이라서 차량통행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라는 본조대원 강구용교사의 말에서 경찰의 불법연행과 처벌은 그 허구성을 드러낸다.

『빌교성당에서 출정식을 가진후 30여m를 걸어나올 때였습니다. 대기중이던 사복경찰들이 우리를 연행하여 닭장차에 태우자 노환이 다 되신 김권일신부님이 갑자기 형사기동대차 밑으로 들어가 눕더니 「내 땅을 내가 걷겠다는데 무엇이 불법이냐」며 우리들의 연행을 몸으로 저지했어요. 다시 경찰에 의해 성당안으로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우리를 옹시하며 몸부림치는 모습에 울컥 눈물이 나왔습니다』라고 밝히는 본조대원 이돈집교사는 그 후로도 여러번 연행되었지만 『불구속입건하기위한 경찰들이 요구하는 신원파악에 응하지 않자 자기들 임의대로 조서를 작성하고는 협의사실을 인정키 어려우므로 훈방한다는 식의 수법을 쓰더군요』라며 쓴 웃음을 짓는다.

연일 내리는 봄비를 뚫고 계속된 걷기 행렬은 제주·광주·전남에서만 열흘동안 1백51명의 교사가 연행됨으로써 13일 경상남도 진주로 이동, 경상대가 원천봉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백여명의 학생·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환영식을 가졌다.

이날 본조대원 숙소에서 전기택교사는 『전교조 사무실에서 끓여주신 라면·떡국을 아주 맛있게 먹은 예쁜 여학생중의 하나예요. 선생님의 고통과 수고의 땀방울처럼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있지만 이 비 그치면 우리 삶의 숨소리는 더욱 우렁차게 되겠지요…』라는 서울 X중여학생의 엽서를 읽고 있다.

『참교육실현을 위한 온 나라 걷기대회가 전국경찰서 방문대회가 된 것 같습니다. 경찰의 탄압이 없었더라면 걷기대회는 아주 조용히 끝날 수 있었는데 대대적인 탄압으로 오히려 우리의 행진이 전국민에게 알려진 것 같아 고맙기도(?) 합니다』라는 전교조 진주지회장 조창래(36·진주 상현여고)해직교사의 말에서 행사를 방관할 수도, 봉쇄할 수도 없는 명분없는 정권의 아이러니를 보여준다.『제아무리 거센 탄압도 우리의 걸음을 막지 못할 것이고 5월28일 서울로 입성할 자신이 있습니다. 남은 반쪽땅을 걷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고 전교조의 승리가 온 국민의 승리로 다가올 날이 머지 않은 지금 흙먼지 마시면서 내땅에 내가 걷는 것은 교육의 길을 평탄케 하려는 걸음인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박병배교사등 본조대원들은 지금 마산·창원을 향하여 굳은 날씨속을 걷고 있다.

경찰, 법적근거 없이 무더기·폭력연행 계속

교육의 길 평탄케하려는 의지—5·28 서울 입성

〈취재팀〉
최 원 일 기자
김 태 수 기자

외대만평

저리가, 앤 내꺼야!!

민주 방송, 그 험난한 여정

탐방

—제작 중지 엿새째를 맞이하는 KBS를 찾아

「관제사장 서기원씨는 즉각 퇴진하라」 「어용사장 물아내어 방송자주권 쟁취하자」

15일 오후, 전면제작중지 3일째를 맞고있는 KBS사원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본관 중앙홀에서 「사원가족초청결의대회」를 갖고 있었다. 7~8백여명의 사원과 가족이 모인 이 대회에서 사원대표들은 KBS의 제작중지가 사원만이 아닌 가족과 국민모두를 위한 것임을 알려나갔고 5시경에는 각종 구호와 피켓을 들고 참석자들과 함께 여의도 가두행진에 나섰다.

『이번 사태는 정부가 서기원씨를 임명하여 5공때와 같이 언론을 장악하려하는 의도에 대한 사원들의 분노입니다』라고 한 보도국 기자는 이번 KBS사태에 대해 평한다.

실제로 KBS와 정부측의 마찰은 3월초 서영훈 전임사장의 사퇴를 계기로 맞이하고 있었다. 서사장이 사원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무의 수당을 준것에 대해 전노협과의 결탁이니하며 정부는 감사를 파견, 「범정수당」등을 운운, 노사측의 합의로 쉽게 해결될 일을 크게 확대, 서사장의 사퇴를 종용하였던 것이다. 이에, 노조측은 삭발식등을 하며 강경하게 맞섰고 서사장 퇴임후에도 사장실봉쇄등으로 민주사장임명을 요구하였다. 이에 더사회측은 정부의 압력으로 KBS사원들간에도 어용지식인등, 평이 안좋은 서기원씨를 사장으로 임명하였고 이것에 대해 노조나 다른사원들도 모두 반대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반대에도 서씨는 지난 12일 오전 사장실로 기습출근을 하였고 노조측에서는 서씨를 즉각 내쫓았다. 이에 서씨는 오후에 다시 출근, 반대시위중인 노조측에 공권력투입으로 맞섰다. 이날 경찰 5백여명의 투입으로 사원 1백17명이 연행되었고 그날 오후 4시부터 사원들은 전면제작중지에 들어간 것이다.

『국민의 방송사에 공권력을 투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쿠데타같은 반란자들의 반항법적 방동아래서가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를 짓밟는 것이며 또다른 유신, 5공의 암흑시대의 서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한 노조원은 이날의 공권력투입을 판개한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방분국에서도 제작중지에 동참했고 다음날인 13일 부산·광주 등지를 비롯한 26개사 1천여명이 서울로 상경, 농성에 가세했다. 이것에 불안을 느낀 서씨는 급히 경찰서에 사진촬대를 막아야한다며 연행자석방을 요구했고, 다음날인 14일 연행되었던 1백17명은 모두 풀려났다. 이후에도 비대위는 계속적인 제작중지와 철야농성을 강행했으나 서씨는 『난 절대 퇴진 할 수 없으며 극한상황으로 치달게되면 정파(停波)도 불사하겠다』라는 공영방송사의 사장으로써 할 수 없는 망발을 하며 강경자세를 보이고 있어 현재(17일)까지 TV나 라디오에서는 정규방송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모든 언론사는 KBS사태진척에 귀추를 주목하고 있으며 각종 제도권 신문사에서는 사설등을 통하여 국민들을 위해서 방송중지는 안되며 일단 방송은 하고 보라는 식의 요구만으로 일관하고, 그나마 한두개의 신문사만이 모든 언론은 동참하여 민주언론을 쟁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KBS언론수호에 동참하고 있다.

현재 KBS방송중지는 이후에도 서씨의 강경대응에 맞선 비대위의 철야농성등이나 각지역별 농성집회로 계속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과거 정부의 시녀라는 비난속에 국민들에게 외면당하던 KBS가 어느정도 정치권력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몸부림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이는 앞으로 정부의 5공과 같은 언론장악의 여부를 결정하고 다른 언론사의 민주언론쟁취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인다.

〈정성엽 기자〉

차표를 끊어주던 여학우

기자의 눈

『정말 고맙습니다. 전국에서 전대협 총회를 지키기 위해 오신 사수대 여러분과 안전한 총회가 되기를 믿어주신 백만 청년학생들께 감사드리며 제4기 전대협은 여러분의 격려에 반드시 보답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지난 4월11일(수) 저녁 10시경 경희대 크라운관 밖은 환호와 힘찬 구호가 끊이지 않았다. 제4기 전대협 의장으로 선출된 송갑석(전남대 총학생회장·무역4) 군의 전대협 총회가 무사히 끝난것에 대한 거듭된 감사의 말에 「사수대원」들은 「전대협 전군가」로 응답하였고, 중간고사를 치르기 위해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구경나온 경희대 학생들은 호못한 표정으로 힘차게 박수를 치고 있었다.

같은 시각, 『아아/ 여기는 본부, 정문 응답하라』 『여기는 정문, 아직까지 이상없음』 워키토키를 들고 경희대 정문을 지키던 사수대원들은 근처에 있던 전경차들 의식하여 다소 긴장돼 보였으나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경비에 여념이 없었다. 『전대협은 백만학도 단결의 구심 아닙니까? 비록 지금은 대표자들의 모임이지만 앞으로 전대협은 저희 일반학우를 포함하는 명실상부한 전국총학생회연합으로 발전하지 않습니까. 사수대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구호를 외치며 규찰을 서던 권기원 (경희대·경제3)군의 말이 아니더라도 총회기간중 경희대 교정 곳곳의 모습에서 사수대원들의 결의를 볼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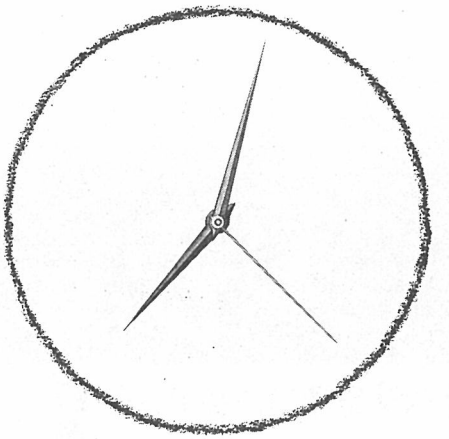
실제로 지난 89년 전대협의 평양축전 참가이후 정권의 학생운동에 대한 탄압은 「공안정국」이라는 조작된 구도 아래 거세게 몰아쳤고, 그에 따라 학생운동이 침체기에 놓였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우세했던 것은 사실이다. 또한 친미보수대연합의 성격을 띠고 민자당이 출범하게 되었을 때에도 각 대학은 학원 자주화 사업에만 급급했다는 논의도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논의들이 쓸데없는 기우에 지나지 않았음을 입증하려는 듯이 전대협 총회를 무사히 치뤄내기 위한 전국에서 모인 학생들의 의지는 매우 높았다.

『무엇보다도 학우들의 세심한 배려와 전대협에 대한 관심, 신뢰는 저희를 감동시켰습니다. 사수대를 위해 필수품과 이불, 음료등을 가져다주고, 새벽 2시 규찰을 서는 사수대들에게 고생한다며 라면을 끓쑥 내밀던 고시원 학우, 송갑석 의장에게 고함에 내려갈때 쓰라고 차표를 끊어다 주던 여학우…. 밤새 쌓인 피로가 모두 풀리는 듯 했습니다』라는 사수대장 김주환 (경희대·물리학4)군의 말은 전대협이 「외형상」으로만의 「백만학도의 구심」이 아님을 잘 알려주었다.

〈김연희 기자〉

개교 서른여섯돌을 축하 합니다

지금 몇 視?



시계를 보지 마십시오.
당신의 視角을 묻고 싶습니다.

새로운 視角으로 다시보면,
동양시멘트는 분명 이제까지의
동양시멘트가 아닙니다.
처음 출발은 시멘트산업,
지금은 품질제일의 '매직쉐프'로
가스기기 분야에서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단단한 이미지를 심어 놓았습니다.
동양시멘트가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새롭게 도전하는 분야는 가전산업—
이제, 고품위 가전 브랜드 '동양매직'으로
가전제품의 개념이 달라집니다.
오늘의 視角으로 조명해 볼 때,
동양시멘트는 젊은 기업,
도전하는 기업임에 틀림없습니다.

동양시멘트

동양시멘트·동양제과·동양증권·동양생명보험·오리온프리토레이·동양유업·동양투자자문·동양창업투자·동양경제연구소·서남재단

문화 논평

「끼」를 극대화시킨 자극적인 센스

——고급 여성지를 살펴본다

최근(89년 말에서 90년-초사이)들어 소위 기존의 저속함을 베제했다는 고급 여성지가 각 출판사들에 의해 한차례 경쟁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난해 창간된 미지의 경우 TV광고에서 부터 이느 도전적인 여성의 목소리로 「배울만치 배웠다. 돈도 있을 만큼 있다…」 하는 식의 도발적인 도전장을 내놓으며 창간되었고, 또 지난달 지일보사에서 내놓은 르지의 경우엔 캐치프레이즈를 이에 「고학력 중상층 여성을 위한 고급 여성지」라고 확실히 공략 대상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고급 여성지와 같은 추세의 일반적 경향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큰 흐름을 살펴보면 대개가 ①어느 정도 안정된 기혼 여성을 주 독자층으로 삼고, ②그녀들이 기존의 것을 과감히 탈피하고 새로운 사고와 현대적 센스(?)에 부합된 삶을 살도록 이끌기 위한 기획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도하에 발간되고 있는 신간 여성지인 「라 벨르」 「마리안느」 「리브우먼」 「세계여성」 「앨레나」 「우먼센스」 「미즈」 등의 최근 4월 발간호를 중심으로 이들이 여성은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파급시키는 또 하나의 오류와 문제점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고급 여성 잡지들에서 보이는 일차적 괴리감은 바로 현실과는 동떨어진 사치문화의 무조건적인 게재에서 나타난다.

돈이 뒤따르는 고급여성

우선 앞에 열거한 고급 여성지들의 표지에서 부터 살펴보자. 여기에서 부터 이들이 이전의 여성지와 매우 다름을 알게 되는데, 가령 표지모델의 치렁치렁한 장신구와, 고가(高價) 정장류의 의상, 그리고 마치 외국 영화속의 중세 연회장에서나 본 듯한 기이한 머리형의 차림에서부터 이들은 기존과는 다른 비쎈(?) 냄새를 풍기고 시작된다.

이들의 경우 모두가 기혼 여성들의 센스있는 생활을 매우 강조하여 이를 비중있게 다루는데 소위 인테리어라 불리는 집단장, 요리와 식단, 취미, 여행 등이 그 주된 소재가 된다. 인테리어의 경우, 최근 방한칸 셋톤 인상 때문에 많은 주부가 자살을 하고 있는 현실을 굳이 비유한다면 그 인상분의 축히 두세배는 될 듯한 소파용 쿠션이나, 침실용 촛대 등을 보여주며 공공연히 「개성있는 인상을 위해서는 이렇게 분위기를 바꾸라」고 안내하고 있다. 또한 링귀네 국수나, 사프랑 소스니 하는 듣도 보도 못한 요리를 벌미라 소개하며, 크레송이니 체리토마토, 스프롯트니 하는 재료로 만들어진 요리로 4월의 식단을 매일매일 바꿔보라고 권장한다.

이들 잡지에서 권장하는 취미의 경우 이제는 6~70년대의 꽃꽂이니, 수예니 하는 것에서 확실하고 과감히 탈피하고 있다. 그 범위는 고가의 에겐 기르기, 보석수집, 골프, 고(古)가구 및 명화(畵)수집, 세계의 아름다운 그릇수집 등 그 사상의 범위를 넘고 있다. 물론 이를 위해 필요한 우리 생활의 경제가능성 문제는 굳이 설명을 하지 않는다 해도, 과연 이를 누릴 수 있는 한국사회의 중상층이 얼마나 되는지는 누구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이러한 고학력 중상층 여성을 위한 잡지들에서 보이는 독자와의 일차적 괴리감은 바로 현실과는 동떨어진 사치문화의 무조건적인 게재에서 나타난다. 여기서 이들 잡지의 본기사로 소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광고들이 놀라운 지면할에로 선전되고 있는 것도 눈여겨 보아야 한다. 주로 주부를 대상으로 한 의류, 속내의 등이 그것인데, 이는 소위 사스테다던 국내 브랜드나 상표의 차원을 넘어 프랑스제, 혹은 이태리제 하는 고가의 상품들이 소개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말썽이 되어 함부로는 선전할 수 없는 수입상품의 은근한 한국시장 침투의 창구역할까지 톡톡히 해내고 있는 것이다.

왜곡되는 사회문제

이들 잡지에서 나타나는 또 하나 공통점이라면 바로 건전한 교양을 추구한다는 명목하에 기존의 일간지와는 다른 사회성 있는 소재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주로 그 한 방법으로 대부분의 잡지들이 인물 탐방의 형태를 띄하고 있다. 그 대상엔 기존의 연예인 중심에서 벗어나 문학가, 법조인, 그리고 정치금인사까지 사실상 대상의 한계가 없이 다뤄진다. 그러나 어느 인물을 막론하고(때론 민중적 작가나 인물을 만난다 해도) 모두가 그 인물이 가지는 사회본질적 의미를 다루기보다는 주변 신변잡기나 혹은 남과 유별나게 다른(소위 개성있는 삶이라는 명목의) 생활상만을 다루어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깨버린 괴팍하고 정신이상자적인 생활에서만 찾아야 하는 듯이 다뤄지는 것이다. 또한 적잖이 다뤄지는 주택문제, 증권문제에 대한 집중분석도 이들 사회문제가 갖는 본질적 의미를 제우적 전경 지성있는 여성에게 전전한 사회의식의 교양으로 다가서도록 제시하기보다는 대부분이 결국은 새로운 유흥을 즐기기 위한 하릴 없는 유한 계층의 투자심리를 자극하는 결과로 글을 맺는 것이다.

고학력 중상층 여성에게는 사치조장, 꿈같은 현실이 고작

고민거리를 만든다(?)

끝으로 이들 여성지가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는 기획을 보면 주독자가 기혼여성이라는 점을 감안, 매달 이들의 관심사인 자녀교육, 부부관계 문제를 특집으로 잡고 있다.

이달의 특집들을 살펴보면 지난달에 「당신 끼 있어?」라는 묘한 질문을 테마기획으로 잡았던 미지가 이달엔 「No, 당신은 귀여운 여자」라는 주제 아래, 그리고 기타 잡지들은 「고학력 여성일수록 중년위기 더 느낀다」, 「부부가 다시 연인으로 돌아온다」 등을 주제로 기획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이런 특집의 경우 애초에 그 소재의 필요성 여부에서 부터 문제점을 느낄 수 있다. 중년기 부부간의 권태기 극복을 성공적으로 해냈다는 「섹세스 스트리」나 부부간의 특별한 애정을 다시 일으키기 위한 방법으로 시도되는 여행기 등의 대부분이 오늘을 사는 여성들의 실질적 삶의 문제를 전혀 도외시한, 현실과는 동떨어진 또 하나의 신데렐라 신화만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비록 실질적으로 그러한 여성의 정신적 소외문제나 부부 권태기 등이 심각한 대다수의 문제라 가정해도, 그 해결책을 대부분 여성들이 나이가 들어도 이에 걸맞는 개성연출(결국은 그것이 봉건적 여성상의 제확립과 다를아닌), 부부간의 성적인 자극회복 등으로 결론을 맺고 있다는 데에서, 이는 부자불식간에 개성있게 현실을 개척하고 활동하기 위한 여성의 의식을 마비시키고 있다 할 것이다.

이윤추구의 산물, 여성지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같은 새로운 취향의 고급(?) 여성지가 유행력으로 나오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자. 이는 결국 6·29이후 정책적으로 대다수 국민들의 허구화된 중산의식을 유포시키는 출판 문화 정책의 한가지 수단이라 말할 수 있다. 지난날의 7~80년대가 투비판적인 성상품화의 폭주를 통해 대중들의 의식을 마비시켰다면, 이제 이에 비판의식을 갖춘 국민들을 또다시 새로운 자극에 들어 넣기 위해 고급을 가장하여 현실과 괴리된 환상을 심어줌으로써 우리의 현재위를 잊게 하는 것이다. 가령 오늘의 기혼여성들중 몇명이 고급 여성지 속에 나오는 2~3만원짜리 앞치마를 두르고, 백만원을 호가하는 주방 시스템 키친에서 파셀리와 피자치즈로 저녁을 준비하고 있겠는가. 결국 그 원인인 자본의 논리는 언제나 비생산적인 부분일지라도 대중심리의 자극을 통해 새로운 이윤을 노린다 볼 때 오늘의 고급 여성지가 바로 기존의 대 출판기업이 만들어낸 새로운 상품에 다름 아님을 알 수 있다.

혼히 대학인을 준 사회인이라 한다. 비록 아직은 관심밖일지 모르지만, 대다수의 대학여성이 이후에 고학력 중산층의 희망에 뜻을 두고 있다 할 때, 바로 이러한 최근 새로운 고급 여성지의 발간과 성향을 비판적으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바로 이 사회의 여성은 「끼」를 극대화 시킨 자극적인 센스를 갖춘 여성이 아닌 현실의 삶에서 자기개혁을 해나가야 할 주체의 여성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김창섭 기자〉

우리말의 쓰임새

(183) 이무럽다, 이물스럽다

이 두 단어는 전혀 다른 경우다.

「이무럽다」는 「임의롭다」에서 나온 말로 「아주 친하다」 「아주 가깝다」 「에질을 차릴 필요가 없다」라는 뜻으로 쓰이며, 「이물스럽다」는 「성질이 음험하여 마음속을 헤아리기 어렵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쓰임새는 『친구 사이가 아무리 이무러워도 지켜야 할 예의가 있지』 『그 의원은 워낙 이물스러워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 나도 통 알 수가 없네』

TV 그것은 현대인을 지배하는 우상인가 두번째 드라마

낭만적 동경이 가려버린 현실의 아픔

한국사회의 다원주의화 현상과 함께 각계 각층의 부문별 활동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TV방송 매체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며, 특히 드라마에 있어서는 이러한 부문별 삶을 영상화시키려는 노력이 역력히 나타나고 있다.

1960년대, 70년대는 「선건설 후민주」 경제개발속에 이를 드라마로 여과시키려는 시도와 부분적인 외래문화의 유입속에 과도기적 단계로—반(半)봉건적 양식과 서구적 사랑의 혼재—사랑판에 입각한 애정물이 주종을 이루었다면, 80년대 중반까지는 국가권력에 의한 3S(스포츠, 쎅스, 스크린)정책과 부분별한 외래문화의 범람속에서 대중을 당시의 사회정치적 격변기의 현실을 외면케 하고, 인간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대담한 노출의 드라마가 방영되는 등, 민족적 정서를 갉아먹는 방송물이 주종을 이루게 되었다.

80년대 후반에는 정치적 공간의 부분적 확대에 발맞추어 드라마예작 주체의 노력과 함께 부문별 프로그램에 대한 소재의 폭과 내용을 넓혔다. 청소년 드라마로 대표적인 「사랑이 꽃피는 나무」, 일상적인 삶을 희극적 표현으로 설정한 「한지붕 세가족」 「달빛가족」 등이 바로 그러한 예이다. 외대생의 일상적 삶과 사회적 문제거리를 부분적으로 도입해 젊은이들의 시각에서 제구성한 「사랑이 꽃피는 나무」, 현대인의 억눌린 감정을 웃음으로 점근한 이웃집 드라마 「한지붕 세가족」 「달빛가족」은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삶과 동떨어진 체제순응적인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크게 두가지로 평가를 내려보면, 우선, 현실적 삶을 진솔하게 보여주기보다는 비현실적 삶을 국민대다수에게 암묵적으로 조장하고 있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의대」라는 특수성을 「대학」으로 무리하게 일반화시켜 실제적 현실과 정서를 「간접체곡」하는 점, 병원의 진료거부 행위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외면한 채 병원에 대한 막연한 관념속에서 히포크라테스적 의사상(像)을 그려기에만 급급한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가부장적 권위주의의 위세 앞에서는 5형제가 달빛(?)처럼 온화한 참인간으로 되는 허무맹랑한 전개, 전세값을 사기당하고도 술한잔의 위로주(酒)에 세상일을 덮어 버리는 그저 무던하기만한 순둘이아저씨의 모습속에서 TV시청의 자기동일시 효과는 자칫 극대화되기 쉽다.

둘째, 기존의 반(半)봉건적인 자수성가 인간상이 현대인의 삶을 비현실적으로 포괄한다. 50년대, 60년대에나 있을 법한 봉건적 전형의 설정속에 다원화된 현대인의 삶을 자의적으로 결합시켜 전개하고 있다. 낙도외사로 나들대로의 자긍심을 극히 개인적 삶으로 점근시킨 점, 만형의 권위앞에 형제와 그의 부인들이 닮아가는 우연이 아닌 필연적 상황하에 부각되는 만형의 모습, 주인집과 셋방살이집의 현실과 이상을 뛰어넘는 담도 없는 열린 이웃의 모습등에서 반(半)봉건적 현실 순응과 체념의 미덕이라는 비수를 숨기고 있다.

허구를 내포하는 것이 드라마의 현실이라고 할 때 물론 사실적 점근의 한계는 노정되어 있으나 허구를 현실과 동일시하는 측면은 당연히 경계되어야 한다. 최근에 방영되었거나 방영중인 번안작품의 드라마—빙점, 사랑의 종말—에서 보이는 홍미위주의 낯선 한국인은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대다수의 토박이 한국인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드라마 소재의 끊임없는 발굴과 내용의 성실함이 다시금 제기되면서, 인간의 실천범주를 사실적으로 구현하려는 노력이 제작주체에 의해 제한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그 작품들을 살펴보면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문제점을 사무적 노동자와 자본가간의 대립과 타협으로 풍자하는 「손자병법」과 같은 주간 연속극, 특집으로 방영되었던 「지리산」과 같은 특집물의 활성화, 미니시리즈의 참신한 장을 열어 놓았던 「천사의 선택」 「마당깊은 집」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민족과 국민의 역동적 삶을 총체적으로 분석하려 했던 대하드라마 「토지」 등이 그 노력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저녁뉴스의 전파를 타고 「전세값 폭등에 비관자살한 가족」의 보도와 같은 중대한 문제를 에써 피하려는 것은 「외부의 강압」에 의한 어려움만으로는 합리화 될 수 없다.

상업주의와 결합한 「사랑놀음」을 매우 복잡하고 아름답게(?) 전개하고 있는 빈약한 내용의 애정물이 황금시간대의 TV에서 여전히 위세를 떨치고 있는 지금, 시대적 삶을,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작품과, 한계층에 중심을 두면서도 집약적인 삶을 진솔하게 제시하는 작품의 부재는 어떻게 보면 당연할 지도 모른다. 이렇게 볼 때 이후에는 3S정책의 보다 고도화된 형태인 「이데올로기적 교란」이 삶을 고립화, 대상화시켜 전행될 가능성은 농후하다.

▲이 드라마들의 대체적인 공통점은 비현실적 삶을 암묵적으로 조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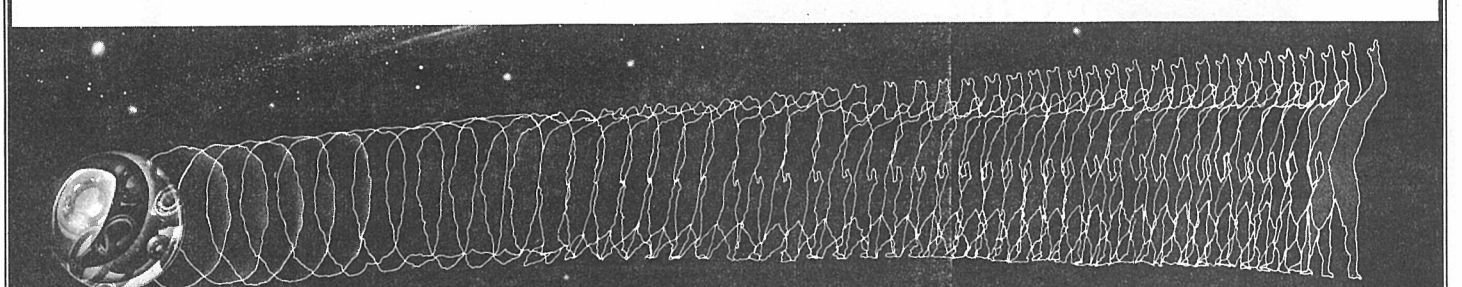
분단의 비극적 삶을 관문점 근처의 현역군인을 통해 실증적으로 조명하였던 베스트셀러 극장의 「임진강」과 같은, 방영을 둘러싼 국방부 관계자의 압력에 대항한 제작주체와 여론의 승리는 모범적 사례였다. 이와같은 과거의 실천적인 노력과 제작내용의 혁신적 개혁이 통탈적으로 수행되어질 때 현실을 바른 관점에서 묘사하는 드라마의 확립은 가능할 것이다. 참여문학의 이론적, 실천적 검증이 「도도한」 물줄기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시점에서, 민족과 국민대다수의 정서에 맞는 현실적이고 이상적인 삶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드라마가 양적 확대와 함께 정형화된 틀로 거듭 나야 할 것이다. 인간을 억압하는 반봉건적 요소로부터의 진정한 해방은 민족정서와 국민이 살아 숨쉬는 삶을 생활의 현장에서 개척하는 것이다. 달나라에서 절구를 찧는 토끼의 낭만적 동경이 이상적인 삶만을 의미하지 않듯이 드라마 역시 이상만을 강조하는 「예외」이어서는 안된다. 허구의 수용은 그 내용의 사회적 현실성에 있는 것이지 막연한 한 가능성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본교 동아리 〈언론문제연구회〉

작은것이 소중합니다 ②

친구야, 어제는 무척 기쁜 날이었지만 난 무척 슬펐다. 우리 학교가 4월의 시작을 알리는 힘찬 음악을 펀 날이었고 우리 과(科)도 총화를 거치고 참석했다. 하지만 큰 깃발 아래 모인 친구들은 힘이 없었단다. 왜냐구? 그건 너희들이 없어서야. 너희가 이디 가편 「난 외대 ××과 학생」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 과나 학교에서 벌어지는 행사에 없는 너희들을 보면 무척 마음이 아프단다. 이제 4월이 시작됐고, 4월엔 우리 과나 학교에 많은 일이 있단다. 「나 하나쯤 빠져도 되겠지」하는 생각은 이제 버리고 「내가 없으면 친구들이 일을 하기 힘들겠지, 같이 가서 도와주자」라는 생각을 하며 힘들더라도 참석해주겠니? 이런 생각들이 모아질 때 우리 과는 단결할 수 있고, 우리 학교도 힘을 얻어 모든 일을 잘해나갈 수 있을거야. 친구야, 함께 하는 기쁨을 우리 같이 누려보자꾸나. 〈문화부〉

KBC 베아링



두드려라! 세계가 열린다

한국종합기계는 젊음과 함께하는 자기연마로 한국의 기업에서 세계의 기업으로 발돋움합니다.

꿈이 큰 젊음에게
내일은 더 밝은 빛으로 다가 옵니다.
용기있는 젊음에게
세계는 더 넓은 문을 준비합니다.
포부와 패기로 가득한 진취적인 젊음에겐
내일의 세계는 도전과 성취의 한마당인 것입니다.

기계산업의 핵이라고도 일컬어지는 베어링
메이커로부터 시작하여 FA시스템, 공업로,
공작기계, 유공압기기등 다양한 산업분야로
진출해가며 다음 세기의 원동력을 준비하는
한국종합기계 — 국내정상의 정밀, 기계산업 메이커로
성장한 한국종합기계가 지향하는 다음 무대는
선진기술과 겨루는 세계정상의 대열입니다.

저희는 꿈이 큰 젊음과 함께
세계를 여는 문을 두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FORD, 일본 NSK, 미국 VICKERS와 합작회사인 한국자동차부품, 한국정밀, 한국비커스는 한국종합기계의 자회사입니다.

韓國火難그룹
韓國綜合機械株式會社
본사: 충구 장교동 1번지 현업B D 21-23F L TEL 729 3423.3433 FAX 729 3420-2

개교 서른여섯돌을 축하 합니다

◇중흥외대 학원자주화, 그 올바른 방도를 제시한다

〈7〉 개선해야할 직원노조 문제점

제몫 찾기에서 이제는 제자리 잡기로

보되기획

행정·인사참여등 제도개선에 목소리 높아져
직원들 주체역량 결집으로 조직강화 요구돼

Ⅰ. 머리말

외대 구성원의 함의속에 대학의 의사를 결정하고 자치의 영역을 점차 확대, 대학의 발전을 힘있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학교 행정이 일부 구성원에 의하여 독단적이고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비민주적인 요소들을 과감하게 척결해 나감과 동시에 새롭게 올바른 위상들을 설정해 나가야 한다.

학원의 한 주체로서 직원들의 집합체인 본교「직원노동조합(이하 직원노조)」이 출범한지 3년째를 맞고 있다. 이제는 직원노조가 조합원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이익집단에서 탈피, 학교운영의 실무행정을 맡고 있는 조합원들이 민주적 대학자치권의 새 주인으로 들어서고, 미래지향적인 올바른 학원공동체 건설에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교 직원노조가 안고 있는 제반 문제점들의 분석을 통해, 각 구성원 집단간의 유기적 연대속에 확고한 민주적 조직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본교 직원노조의 출발

지난날 대학내의 제3세력, 학교행정의 집행자, 또 심하게는 학교당국의 하수인쯤으로 인식되어지기도 했던 대학 직원들이 불과 1~2년 사이에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 많은 오류와 시행착오 속에서 『대학주체』로서 자리잡아 가고 있는 현상은 분명 대학사회의 「새로운 전환기적 변화」라 할 수 있다

87년 6월 사회 각 분야에서 일어난 민주화 바람이 대학사회선, 일상적인 활동을 통한 노조원의 결속및 의식강화 등이 이번 1학기부터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이와같은 추세는 여타 대학의 경우에도 학교인사·행정·총장선출에의 직원참여 확대, 유니온-샵 제도의 도입, 일반직원의 처장급까지의 발령 요구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Ⅲ. 현 직원노조 구성체계

현재 직원노조의 조합원 수는 전체직원 4백16명중 서울캠퍼스 1백89명(여 71명), 용인캠퍼스 1백11명(여 39명)으로 총 3백명이 가입되어 있다. 비조합원은 서울 46명(여 6), 용인 15명(여 없음)으로 총 61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현재 비조합원들중 일부는 직원노조와 분리하여 비공식적인 「직원협의회」(회장 박종은, 학생처 취업보도계)를 구성, 비정규적인 모임을 갖고 있어, 전체직원들의 결속을 저해하는 분열된 양상을 초래하고 있다.

직원노조 기구를 보면 조합장과 수석부조합장 이하로 사무국과 서울·용인에 각각 부조합장체제 아래 기획·조직·여성부등 7개 부서가 있다. 또 상설기구로 주임·서기·기능·용인 신청최루탄이 첫선을 보이는날, 민초들 살림 아무리 어려워도 노가리구이 꼭 챙겨들고 수고한 나리님들 찾아뵈야 할사(事)。

○‥서×원씨왈 『지회 KBS는 방송윤리심의위원회 심의및 6공화국의 언론장악권을 수호하며 보다나은 반민주적 공영방송이 되기위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흡족한 음모앞에는 항상 꼭두각시가 나타나는 법, 6공언론탄압에 앞장선 자칭 KBS사장 서씨를, KBS전사원들은 자신의 생명인 방송을 중단하면서 까지 저지하고 있다는데.

제2의 시청료거부운동 일어나 민초들 뚤뚤 뭉치기전에 꼭두각시놀음 집어치우시길。

꼭두각시

대결단의 의지

○‥끼리끼리 수준에 맞는 오합지졸들이 뭉친 구국의 대결단, 과연 놀랍긴 놀라워.

남의 집에 가서는 방어리 냉가슴마냥 찍소리 못하던 김·박씨가 집에 들어오더니 서로 칠없는 이어나, 도덕성 말살이니 들먹이며 속보이는 싸움을 피터지게 하는 것이 대결단의 의지인 모양。

모스크바 한번 다녀와서 호들갑을 떠는 철부지 두 아이가 정권장악의 큰 야심을 품었다니, 어린마음에 상처줄까 크로니클자 측은하기만。

○‥맑은 하늘아래 이문별 대운동장에 난데없는 소주병이 날아다니고 아니땐 플래카드에 불이붙는 해괴망측한 사태가 일어나.

모의월드컵행사가 사상유례없는 일권끝에 출부차기 순서까지 가, 여례흡산들 가슴조이며 지켜보는 가운데 서부른 심판과 종차는 초보선수간에 신호교환이 맞지않아 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는 웃지못할 사례.

아무리 흡산들 팔뚝 좋고 말막 좋다지만 타대학 손님까지 불러놓고 꼴갑떠는 일은 없어야 할사(事)。

○‥『권 력도 부(富)도 이름도 남김없이/외대와 함께 하겠다는 뜨거운 맹세』 외대의 아버지로 선출된 신임 총장님을 위해 불렀지는 노래가 있으니 이를하야 「신(新) 님을 위한 행진곡」이라는데.

『박총장은 권력따라 외대를 떠났어도—』 자책들의 의사도 묻지않고 돈 많은 어머니가 맞아들인 새아버지이지만, 전(前)아버지처럼 자식을 버리지 말고 잘 돌보사 『세월이 흘러가면 흡산은 말하리. 애국외대 민주총장 자랑스럽네 배움터—』라는 후렴구가 애창되게 하시압。

○‥과 학 후진국의 불명예를 씻고자, 치안본부가 앞장서서 두 눈에 쌍불을 키고 신체 쫌개발에 몰두, 머지않아 노벨화학상 수상은 무난할듯。

얼마전 치안본부에서 안전성 높고, 가격, 성능면에서 불가사의한 2종의 최루탄을 개발, 특허청에 의장등록을 마치고 은근히 노벨발포상까지도 기대하는 모양。

직원들은 스스로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학교운영을 위한 전문행정의 실무주체로서 학원구성원들을 위하고 이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의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일한 태도에서 탈피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는 학교당국에 예속된 피교육인의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진정한 대학발전을 위한 학원공동체 건설의 한 주체로서의 의식함양이 절실히 요구된다.

직원노조가 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상호신뢰의 틀속에서 조합원들을 보다 확고히 결집해 내야한다.

현재 가입 대상인원 3백50여명중 3백명(85.7%)이 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나, 비조합원들에 대해 앞으로 성실한 자세로 조합원 가입을 추진, 자동 유니온-샵 제도의 단체협약을 관철시켜 나가야 할것이다.

(540호에 계속)

〈류영조 기자〉

전체취업률 71.0%
순수취업률 5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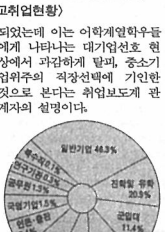
◇취업—상—'89본교 취업 현황

올 90년 2월 졸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2월28일에 집계된 89학년도 취업현황에서 본교 전체취업률 71.0%, 순수취업률 51.4%로 작년 같은기간에 비해 약 2.0%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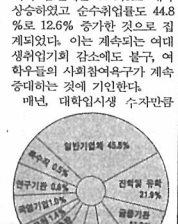
우선 전체취업률부분을 살펴보면, 서울캠퍼스의 경우 주·야간통폐합으로 전체 졸업자수가 증가하였음에도, 경기침체로 인한 대기업의 고용수효감소되었는데 이는 이학계열학우들에게 나타나는 대기업선호 현상에서 과감하게 탈피, 중소기업위주의 직장선택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는 취업보도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단대	전체취업률(%)				순수 취업률(%)			
	남	여	계		남	여	계	
서 양 어 대	71.9	64.7	69.2	▽	51.6	49.8	50.9	▽
동 양 어 대	81.4	57.6	73.0	▽	60.1	46.8	55.4	△
정책과학대	71.4	26.7	74.8	△	47.1	13.3	43.8	△
법 과 대	67.0	33.3	69.9	▽	46.6	22.2	44.6	▽
상 경 대	90.3	40.0	89.4	▽	76.0	40.0	75.3	△
사 범 대	86.4	74.2	78.2	△	68.2	57.3	60.9	△
계	78.0	62.5	73.6	▽	58.4	48.6	55.6	△
인 문 대	48.3	36.8	43.8	▽	13.8	21.1	16.7	▽
서 양 학 대	81.3	55.2	68.1	△	55.7	43.7	49.6	△
동 양 학 대	74.3	58.0	66.9	△	47.9	33.6	41.4	△
사 과 대	66.4	20.0	64.4	▽	38.1	20.0	37.3	▽
자 과 대	73.5	75.0	73.9	△	48.2	53.6	49.5	△
계	74.3	56.0	66.9	▽	47.6	40.2	44.6	△
합 계	76.7	59.5	71.0	▽	54.8	44.8	51.4	△

〈'89학년도 본교취업현황〉



〈'88학년도 입증별 취업현황〉



〈'89학년도 입증별 취업현황〉

양캠퍼스를 통틀어 가장 높은 취업률을 나타난 곳은 전산학과이며 서울캠퍼스의 경우, 95.0%의 터어키어과가 가장 높은 취업률을 보였다. 단대별로 살펴보자면, 서울캠퍼스 상경대가 전체취업률 89.4%, 순수취업률 75.3%로 가장 높았고 용인캠퍼스경우 73.9%의 전체취업률을 보인 자연과학대를 들 수 있다.

이상은 전학·유학·군입대등을 포함한 전체취업률을 중심으로 살펴본것이고, 도표에서 보여지듯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사회진출」은 순수취업률로 알 수 있다.

순수취업률에는 일반기업과 금융기관및 언론·교직·자영및 기타 등의 분야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순수취업률양상은 전체취업률과는 다른 경향을 나타내는데 본교의 경우, 서울캠퍼스는 상경대·사범대등 비교적 진출분야가 뚜렷한 학과들의 순수취업률이 70.0%를 상회하며, 용인캠퍼스는 자연과학대와 서양학대만이 순수취업률 50%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순수취업률 업종별성향은 대다수 일반기업에 취직하며 그 다음이 금융기관, 교직, 자영및 기타의 순이다. 각 캠퍼스별로 조금씩 다른데 서울 캠퍼스는 일반기업·금융기관이 용인캠퍼스는 일반기업·자영및 기타 비중이 높았다.

본교 여성취업률을 살펴보면, 전체취업률이 작년 49.1%에서 금년에는 59.5%로 대폭 상승하였고 순수취업률도 44.8%로 12.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계속되는 여대생취업기회 감소에도 불구, 여학우들의 사회참여욕구가 계속 증대하는 것에 기인한다.

매년, 대학입시생 수자만큼이나 대학졸업생의 수자는 적체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심각한 「취업난」이 점차 누증되고 있고, 본교상황도 다를바 없다. 이에 다음호에는 본교실정에 맞는 발전적인 취업난극복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540호에 계속)

〈신나영 기자〉

쌍용의 기업이념은 신뢰, 혁신, 인화입니다.

개교 서른여섯돌을 축하 합니다

쌍용인은 이렇게 합니다

지난 해 3월15일 쌍용은 창업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날 저희들은 오늘의 쌍용을 있게 해준 고객 여러분께 깊이 감사하면서 더욱더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 날 것을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 다짐의 실천을 위해 저희들은 생산현장에서, 매장에서, 연구실에서, 사무실에서 토론을 거듭하여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이 지침은 현재 쌍용의 생산, 영업, 교육, 인사제도 등 모든 분야에서 쌍용을 이끌어 가는 좌우명이 되고 있습니다.

쌍용은 이 좌우명에 어긋남 없는 생활로 더욱더 사랑받는 여러분의 기업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고객이 있음으로써 비로소 우리가 있고, 고객의 신뢰를 밑천이 우리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고객을 사랑하는 쌍용인이 된다.
- 고객을 자주 만난다.
- 고객의 소리를 경청한다.
- 고객에게 친절히 한다.
- 고객과의 약속을 지킨다.
- 고객을 위하는 일에 정성을 다한다.
- 고객의 불만은 즉각 해결한다.
- 마무리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

정도를 생활화하는 쌍용인이 된다.
- 정직하고 성실하게 생활한다.
- 공정하게 경쟁한다.
- 공평하게 대우한다.
- 회사를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올바르게 처신한다.
- 경당한 방법을 택한다.
- 공과사를 엄격히 구분한다.
- 사회의 질서와 회사의 규범을 준수한다.

우리는 고객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남보다 나은 품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혁신을 추구하는 쌍용인이 된다.
- 현상을 새로운 시각에서 본다.
-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목표를 높게 설정한다.
- 항상 문제를 찾고 새로운 발상으로 해결한다.
- 많은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 계속해서 실험하고 시도한다.
- 끊임없이 자기개발에 노력한다.
- 자기 일에서 전문가가 된다.

변화를 수용하는 쌍용인이 된다.
- 항상 미래를 대비한다.
- 변화를 파악하는 능력을 기른다.
-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 변화를 가까이 하고 받아들인다.
- 변화에 자신있게 대처한다.
- 변화에서 발전의 기회를 찾는다.
-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한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활동의 성과가 그 주체인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믿고,

사람을 존중하는 쌍용인이 된다.
- 타인의 인격을 존중한다.
- 타인을 믿고 자율성을 부여한다.
- 타인의 말을 경청한다.
- 타인의 성장을 돕는다.
- 타인의 역할을 인정하고 격려한다.
- 스스로를 아끼고 긍지를 갖는다.
- 스스로 존중받도록 행동한다.

팀워을 중시하는 쌍용인이 된다.
- 솔선수범한다.
- 자기역할을 다한다.
- 팀의 목적을 존중한다.
- 대화를 즐겨한다.
- 서로 도움을 준다.
- 공동과제를 자주 수행한다.
- 다른 팀과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쌍용

이강혁 총장 취임

"학원내 신의와 윤리풍토 조성할것"

본교 「제3·4대 총장 이·취임식」이 지난 4월14일(토) 오전 11시 대학원 104호에서 이강혁 신임총장, 박필수 전임총장, 이숙경이사장, 김현옥 동문회장 및 교수, 직원 2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이날 취임식에서 이강혁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그동안 대학과 대학인이 학문 외적인 격랑에 봉착하거나, 이상과 현실이 상형대립(相衡對立)하는 여건속에서 많은 고뇌와 갈등에 시달려 왔다』면서 『이제 신의와 윤리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강을 확립, 국가사회의 부강과 복지에 기여하고 나아가 문화창달에 공헌하는 본교의 명예로운 전통을 빛내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취임식 도중 학생 20여명이 식장앞 대학원 로비에서 20여분간 『민자당독재 하 수인 박필수는 사퇴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왕산 민주 동문회」 창립

회장에 오승준씨 선출

「한국외국어대학교 왕산 민주동우회 창립및 발기인대회」가 지난 4월15일(일) 용인캠퍼스 어문학관 206호에서 졸업생 및 재학생 1백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민주동우회 창립 경과보고 △임수경후원회 사업보고 △회칙심의 통과및 회장선출 △창립선언문 낭독 등이 진행된 이날, 민주동우회 사무국장 김유산(서학·독어4)군은 『왕산 민주동우회의 조직을 더욱 견고히 하기위해 기관지인 「신세벽」을 격월간으로 발행할것』이라며 『4·19기념 등반대회, 광주 망월동참배, 6월대동제등을 준비, 더욱 많은 졸업생, 재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할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회장선거가 진행, 단일 후보로 출마한 오승준(서학·서반어이82학번)씨가 만장일치로 회장에 선출되었으며 오씨는 창립선언문을 통해 『우리나라의 자주·민주·통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왕산동우회를 건설할것』이라며 『이를 위해 모든 졸업생및 재학생이 주인의식을 갖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서대「편집부협의회」「편집실무학교」개최

서양어대 「편집부협의회」는 각과 편집부 소속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4월16일(월)부터 내일(18일)까지 3일간 대학원소강당(6104)및 전산실에서 「편집실무학교」를 개최한다.

컴퓨터를 이용한 편집실무, 편집의 제반기술과 학내편집활동의 위상정립을 위한 이번 편집실무학교는 서양어대·각과 신문·단대지등의 발간과 관련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중간고사 23~27일 실시

서울·용인캠퍼스 90학년도 제1학기 중간고사 일정이 오는 4월23일(월)부터 27일(금)까지로 확정, 발표되었다.

중간고사 기간에는 모든 강의가 휴강, 시험만 실시되며 시험시간표는 발표되지 않으므로 수업시간 중 담당교수가 치시하는 바에 따라야한다. 특히 언어실습, 회화 및 시청각 과목은 수업시간 중에 담당교수가 직접 실시한다.

자연과학대 체전 열려

화학과 종합우승

「제10회 자연과학대 체육대회」가 지난 4월9일(월) 10일 양일간 6백여명의 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대운동장에서 열렸다.

축구, 농구, 배구, 발야구, 족구, 줄다리기, 단축마라톤 6개 종목이 치뤄진 이번 체육대회 결과, 화학과가 종합우승을 차지하였으며 수학과와 전산과가 각각 2·3등을 하였다.

제2대 언협출범

언론학교 졸업식도 열려

본교 언론협의회(이하 언협)는 지난 4월14일(토) 오후3시 용인캠퍼스 교양학관 201호에서 「제2대 언협 정기총회및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본사포함 본교내 5개언론사 1백여명의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제2대 언협의장 문정원(동양·마인어4)군은 『외대내의 학우들에게 올바른 사상이념을 전파하고 진정한 언론관이 무엇인지를 선도적으로 깨우쳐 나갈 수 있도록 할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언협은 지난 4월11일(수), 12일(목), 14일(토) 열렸던 「제1회 언론학교」의 졸업식을 함께 진행하기도 했다.

재단 수익사업 빌딩 준공

본교 재단, 학교법인 동원육영회는 지난 4월 10일(화) 오전11시 대치동 소계 「대원빌딩」 1층로비에서 이숙경 동원육영회 이사장, 이강혁총장, 김현옥 동문회장을 비롯, 교수·직원·학생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원빌딩 준공식」을 가졌다.

용성총련, 기자회견 열어

「반미 조국통일 소위원회」건설 제안

「용인·성남지구 총학생회연합(이하 용성총련)」은 지난 4월13일(금) 오후4시 경원대 학생회관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투쟁노선을 밝혔다.

「운동의 대중화 실현」, 「운동의 통일 달성」을 목적으로 진행된 이날 회견에서 용성총련 의장인 경희대학교 총학생회장 이기헌(무역·4)군은 『90년도의 투쟁기조는 반미 자주화 투쟁과 자주통일 투쟁이다』라며 『친미 보수대연합 분쇄투쟁과 통일운동의 조직적·대중적 사업을 위한 「반미 조국통일 소위원회」 건설이 구체적 사업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반미조국통일 소위원회 임시 위원장으로 선출된 경원대 총학생회장 최학돈군은 『자주교류의 움직임이 대중속에서부터 내놓아 수 있도록 학과별로 남북학술 교류 추진위원회를 꾸려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홍보실 「교사인명록」발간

「외대소식」발간 등 본교의 대외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홍보실은 개교기념일에 즈음하여 작년 언론인 수첩제작에 이어 오는 4월20일(금)경 「전국동문 중고교사 인명록」을 발간할 예정이다.

단체교섭 합의점없이 끝나

노조 임시총회 오늘 개최

지난 4월6일(금)학교와 직원노동조합(이하 노조)의 1차교섭을 시작으로 총5차례에 걸친 단체교섭결과, 단체협약안(노조측) 총1백45조항중 40여개조항만이 합의를 본채 마무리되어져 이후 학교측과 노조측의 마찰이 생길것으로 예상된다.

학교측이 교섭진행에 있어서 준비부족과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는 지적을 받은 이번 5차례의 교섭과 관련 노조측은 『교섭중 학교측은 각조항을 작년그대로 고수하려했으며 기본적노조활동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다』라고 비판하고 『학교측의 이같은 입장이 계속 된다면 파업을 초래할것』이라고 학교측의 성의있는 협상태도를 촉구했다.

또한 노조활동 부문에 있어서나 직제개편등엔 의견을 좁히지 못하는 반면 교섭위원구성과 노조위생부문에만 합의를 보는등 단체협약의 중심조항엔 전혀 해결점을 찾지 못한 이번 교섭에 대해 학교측은 『학교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노조의 지나친 요구와 수익단체가 아니라는 학교의 특수성때문에 합의도출이 어렵다』고 설명하고 『양측의 문제해결을 위해 계속해서 노조측과 논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2주동안 진행된 단체교섭과 관련 노조는 오늘(17일) 서울과 용인에서 「1990년도 노조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단체협약 내용에 관한 의결안준과 노동쟁의결의를 위한 이후 임시총회 개최 사항여부 등을 가지고 노조원들의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간고사 일정 확정

지난호 (538호) 11면 「총학생회 학술부 원고모집」기사중 마감일을 5월1일(화)에서 5월10일(목)로 바로잡습니다.

바톤 넘기

영어과 도서관을 찾아서

서울캠퍼스 본관2층 215호 영어과 학생회실(이하 학생회실)이 지난 4월4일(수)부터 「영어과도서관 및 열람실」로 개조되어 운영되고 있다.

「영어과도서관」은 본교 최초의 과 단위도서관으로 다른 과에서도 운영되고있는 「문고」형태를 발전적으로 개선, 이번에 「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한 것이다.

문고에 비해「영어과 도서관」은 아직 목록색인 작업이 진행중이지만 도서목록의 과학적 관리를 할 수 있고, 전공서적 중심의 장서는 과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정확한 개관시간(오전9시)과 폐관시간(오후8시)을 가지고 3명의 사서가 교대로 전반관리를 하는 점에서 「도서관」이라 할 수 있다.

『열람실은 32석 규모로 구비, 영어과 학생들의 공부방으로 사용할 것』이라며 『과 학생들이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잡을 것입니다.』라고 영어과회장 정해준(4학년)군은 과 도서관의 의의를 말한다.

영어과에 배당되는 교재채택비와 교수님들의 지원금을 통해 마련된 영어과 도서관은 『과』학생들에게 전공공부와 원하는 지식을 습득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고 학생들이 부담없이 출입·이용할 수 있어 학교 도서관과는 또다른 차이가 있다.

영어과 도서관은 이후 지속적인 장서의 보강, 전문사서인력의 양성으로 완전한 도서관 형태를 갖춰 나가야했다. 그러면 7백여 영어과 학생들만의 도서관이 아닌 서울캠퍼스 8천여학생 모두에게 개방될 수 있는 도서관으로 발전할것이다.

〈김성렬 기자〉

교직원 동정

◎여직원회 제일모직 의류 할인판매

본교 여직원회는 어제(16일)부터 오는 19일(목)까지 4일간 대학원105호에서 제일모직 남·여성복과 에스에스스포츠의류를 할인 판매한다.

학과움직임

◎서양어대 불어과 「시사토론회」개최

서양어대 불어과는 오늘(17일)오후4시 30분, 대학원6006호에서 「4·19의 현대적 의미와 민자당에 대하여」등을 안건으로 「시사토론회」를 개최한다.

◎주한 터키대사 「악제르」씨 터키어과방문

동양어대 터키어과는 지난 4월13일(금) 사회과학관 205호에서 주한 터키대사무안메르악제르(Maumer Akcer)씨의 방문을 받고 터키어과 학생들과의 간담회를 마련하였다.

◎서울 아랍어과 과신문 「움마」발간

동양어대 아랍어과는 과신문 「움마(이슬람공동체)」를 4월 12일자로 발간하였다.

◎용인 서반아어과 특강 개최

서양학대 서반아어과 학생회는 4월18일(수)오전 11시부터 교양학관 214호에서 「동양학과 여성학」이란 주제로 교양특강을 개최한다.

◎서양학대 노어과 원고 모집

서양학대 러시아어과 학생회는 월보 「MOCT」와 학술지 「PACCET」에 실을 원고를 모집한다.

동아리 소식

◎서울, 동아리 연합회 「동아리 마당」원고모집

서울캠퍼스 동아리연합회는 「동아리 마당」에 실을 시, 소설, 수필, 꽁트 등을 모집한다.

*영화상영안내〈4월17일(화)~4월23일(월)〉

영화명 / 날짜	서울캠퍼스	용인캠퍼스
17일(화)	지붕위의 바이올린	언더화이어(Under Fire)
18일(수)		트론(Tron)
19일(목)	파라다이스	계엄령
20일(금)		귀신
28일(월)	살바도르	대행동
생영시간 및 장소	매일 오후2시 시청각실 비데오룸(2202호)	매일 오후3시 어문학관 비데오룸(1406호)

*이 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비둘기 게시판

◇이문◇

논문, 독후감 현상공모

·내용:5·18광주민중항쟁 10주기를 맞아 광주항쟁의 역사적 경험과 교훈을 거울로 5·18에 대해 연구한 참신한 논문이나 5·18관련 책에 대한 독후감.
·대상:제 외대인, 특히 90학번 학우들의 자발적 참여를 환영하며 학회나 소모임속에서 집단적으로 함께 연구, 조사해서 완성시킨 작품이면 더욱 좋습니다.
·매수:논 문—60매 내외
독후감—15매 내외
·기간:5월10일 마감(기간 엄수요망)
·제출:함께가는 총학생회 학술부(학생회관 2층, 문의는 총학생회로)
·시상:상패및 상금(논문 당선작—10만원
가 작— 7만원
독후감 당선작— 5만원
가 작— 3만원)

—총학생회 다가오는 학술부—

동양어대 공고

동양어대 9기과 학술부장에게 알립니다. 오는 4월18일(수) 오후5시 동양어대 학생회실에서 「교과과정개정」에 관한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활참시 불이익이 있사오니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양어대 학술부장—

불어과 시사토론회

불어과 모든 학우여러분, 시험철과 더불어 분주한 일정속에서도 우리주변의 흙먼지를 조금이나마 떨어버리고자 다음과 같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안건:4·19의현재적 의미
민자당에 대하여
·일시:4월17일(화) 오후 4시30분
·장소:대학원지하(6006)

—불어과 학생회—

4월혁명 30주기 기념사진전

상경대학생회는 4월혁명 30주기를 맞아, 4월혁명에 대한 학우 여러분의 올바른 이해에 도움이 되고자 4월혁명 당시의 생생한 모습을 담은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기간:4월19일(목)까지
·장소:사회과학관 앞

—민족상경대 학생회—

◇왕산◇

외대환경보호모임「알섬초동」

늦었지만 이제 새롭게 시작합니다. 서툰 몸짓, 투박한 손길이지만 그대 가슴을 열고 만나고싶습니다.(학생회관 312호)

—외대환경보호모임「알섬초동」—

4.19혁명 계승주간 문화행사

4.19혁명 30주기를 맞아 「4월 영화제」를 실시합니다.
·5월17일(화) 오후 1시~4시까지
「슬픔을 자르고」「친구여, 이제는 네가 말할때」
·4월18일(수) 오후 12시30분~5시20분
「87에서 89로 전진하는 노동자」
·곳:어문관 영사실
·입장료:500원

—예쁜 총학생회 문화부—

경오년 판화·민화 교실

사람사는 세상의 자유를 갈구하고 사람사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찾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친구를 기다립니다.
단, 프락치랑 짬새는 절대사절!
·언 제:4월16일(월)~5월4일(금)
(말에따라 토·일요일도 특강함)
·어디서:학생회관 319호 동아리방
·누구를:그림 못 그려도 무지무지 관심있는 왕산학우
·때:늦은 5시30분~7시
·얼마냐구요:재료비만 준비하세요

—그림사랑—

미술반 신입생대면식

·날자:4월17일(화)
·장소:동아리방
·시간:오후5시30분
·안건:신입생간의 친목도모

—미술반—

사학과 모여라!

인자하고 자애로운 우리의 선배 84학번 홍순일 형이 결혼한데요. 모두들 모여 한껏 축복해줍시다.
·때:4월22일(일) 오후2시30분
·곳:장남역 근처 「목화예식장(2층성실)」

—사학과—

「동아리 마당」원고모집

열린마당 「동아리마당」 제4호에 실을 원고를 모집합니다. 시, 소설, 수필, 꽁트 등 다양한 형태의 원고지를 가지고 언제든지 동·연의 문을 두드리세요.

—제8대 즐거운 동아리연합회—

인도어과 공고

과회지 편집위원을 찾습니다. 인도어과에 소속된 학우는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인도어과의 새로운 한면을 창조할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89, 90학형들의 많은 참여와 깊은 관심을 부탁합니다. 언제든지 과 학생회로 문의, 신청 바랍니다.

—인도어과 편집위원회—

HAM

OP국가고시 일정이 고시되었으니, 회원들은 오시기 바랍니다.
·준비물:사진 2매
·power:3K
·OP교육일시:월, 화, 목요일

—HAM—

취업정보특강

〈이문〉
·때:4월18일(수) 오후4시
·곳:대학원 (6105)
〈왕산〉
·때:4월19일(목)오후3시
·곳:자연과학대 대강당

—졸업준비위원회—

동문회

동아고

·왜:제의대 동아고 동문체육대회
·언제:5월2일(수) 오전11시
·어디서:학교운동장(이문)
·회비:10,000원
*졸업하신 선배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대신고

·때:4월18일(수)오.
·곳:왕산 학생회관 식당
·안건:동문 조직 활성화
·회비:각자 양심껏

제주향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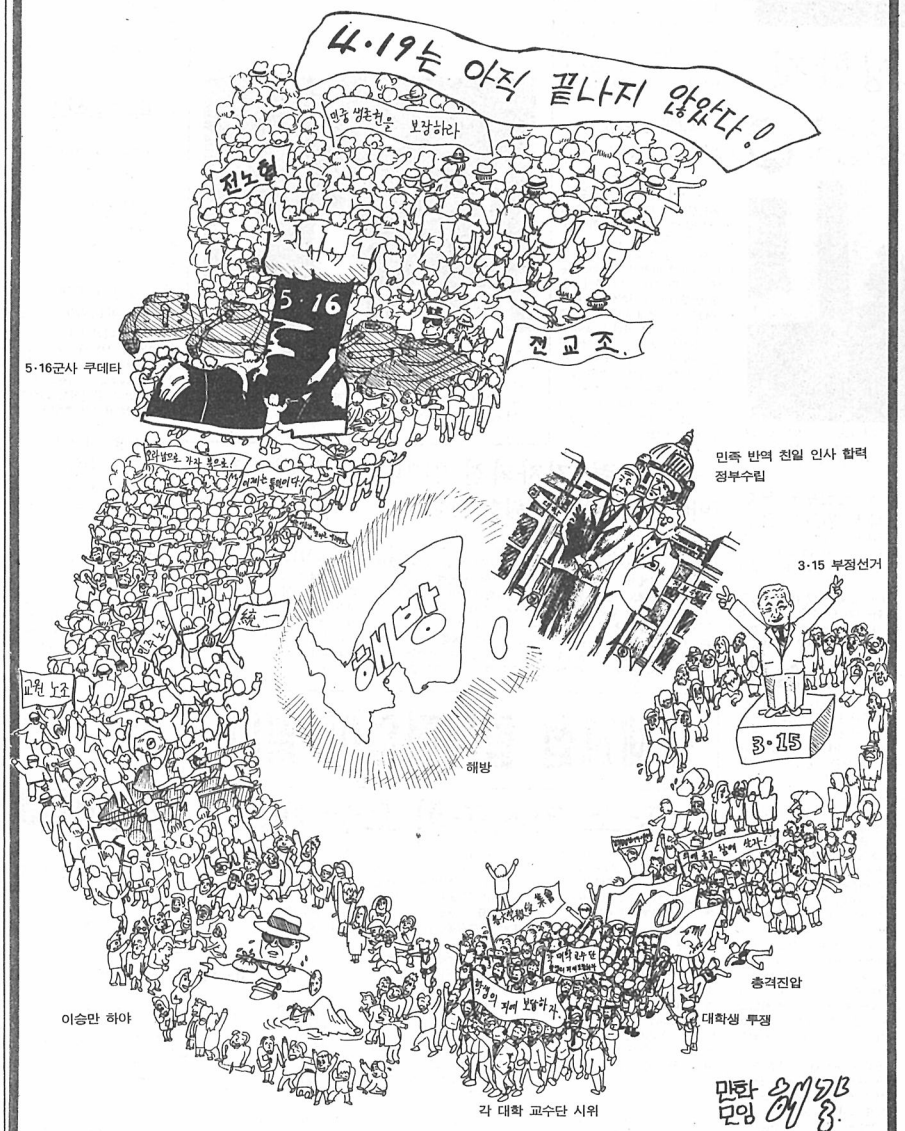
·때:매월 둘째·네째주 목요일 오후5시
·곳:왕산학생회관 식당
*탐라인의 많은 참여를 ……

〈이 광고란은 무료입니다. 외대인의 많은 이용바랍니다〉

광고문의: 서울—본사기자실(학생회관 203호)
용인—본사기자실(학생회관 212호)

나·이·제·말·하·노·라

한반도를 사랑했기에 4·19는 있었노라고



본교 동아리〈만화모임 해갈〉

4·19는 정말로 악몽이여

진정 하나된 통일조국에서만이 4·19는 아름답게 부활하리라. —통일꾼—

4·19 정신이 해마다 4월 19일에만 부활될 것이 아니라 미국과 노태우 일당을 몰아내고 민족의 통일을 이루는 날까지 매일 매일 새롭게 살아 나왔으면. —J.여—

4·19, 4·20(개교 기념일) 4·19는 외대를 잉태하였다!? —조선소 모씨—

—외세와 그 하수인—

백지 대자보

주제:부활하는 4·19

그 날 「독재 타도」 외쳤듯이 오늘도 「괴뇨 타도」 외치리라.

—혁명정의LAG—

4·19의 「부활」은 우리의 책임이다. 4·19를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횃불로 만들자. —여성전사—

4·19때 외대는 데모안했다며?—그때 왜 그런지 알아? 외대는 4·20에 태어났으니까……. —외대학우—

4×1×9=36, 외대도 서른여섯살. 4·19의 뜻을 이어 미완의 혁명을 완수하는 것은 외대의 필연적인 의무라네. —선모씨—

파수대

『분노는 계속됩니다!』

—지난 4월16일(월) 시위도중 학내에 난입한 경찰—

〈허행진 기자〉

신간소개

토콜로시, 우리들의 희망
—로널드 시걸 지음
—김명식 옮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도시 외곽지역에 사는 흑인 주민들이 백인들의 「아파르트헤이트(인종 차별정책)」에 항거한 실화를 바탕으로 지어진 책이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폭넓은 독자층을 대상으로 한 이 책은 단순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예리한 풍자와 열정적인 도덕적 신념이 담겨져 있다.

〈소나무퍼냄 값 2천5백원〉

땅과 집 그리고 재벌
—한국 노동교육협회 지음

최근 폭등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월세등 토지·주택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그 해결방안을 제시한 책이다.

부동산투기와 과다한 공약남발로 인해 대다수 국민들이 땅한평, 집 한채 가질 수 없는 현실을 도표와 그림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으며,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체로 서술되어 있다.

〈돌베개퍼냄 값 1천5백원〉

동트는 미포만의 새벽을 딛고
—백무산 지음

「파업을 단행하기 전까지 깃발은 한낱 천조각이었으나… 이제는 우리들 중 누구나 낡은 천조각만 잡아도 다시 깃발이 된다」 노동자 시인으로서 호평을 받고 있는 백무산씨가 88년부터 89년초까지 1백28일간 진행되었던 울산 현대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을 전체 7장의 장시로 형상화한 시집이다. 고되고 힘들었던 파업투쟁의 일화들이 실감있게 표출되고 있으며, 파업을 통해 얻게되는 「노동자계급으로서의 자각과 긍성」이 뚜렷이 제시되고 있다.

〈노동문학사퍼냄 값 2천5백원〉

문화단신

4월, 그 가슴으로
—한국 민족예술인 총연합 주최

4.19혁명 30주년 기념공연 「4월, 그 가슴으로」가 한국 민족예술인 총연합 주최로 4월 21일(토), 4월 22일(일)양일간 현양대학교 노천극장에서 개최된다.

민주·통일운동의 새 장을 열었던 4월혁명의 의미를 문화운동 차원에서 재조명 하려는 이 무대는 4월혁명과 5월 광주의 항쟁, 반민주적·반민중적 세력에 대한 투쟁, 통일운동과 임원을 전체 3부로 나누어 그려내고 있으며 춤, 음악, 시와 영상이 어우러지는 종합무대이다.

▲입장료:2천원
▲연락및 문의처:한국 민족예술인 총연합 735—2407

1990 International Summer School in Korean Language and Culture, Seoul Korea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하계대학 학생모집

한국외국어대학교는 올해 처음으로
해외동포 및 외국인대학생을 대상으로 국제하계대학을
개설하여 한국어·한국문화를 수강할 학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일시 및 장소

1) 일시 : 1990년 6월 25일(월)~8월 10일(금) 7주간
2) 장소 : 본 대학교 한국어 문화연수원 및 기타 부속 시설

2. 개설과목

○한국어(필수과목, 주당 20시간)…… 3학점
○한국학(선택과목, 한국문화·한국예술) …… 2학점
(〃 한국사·한국현대사회) …… 2학점

효율적인 한국어 학습을 위해 입학생에게 배치고사를 실시, 한국어 이해능력에 따라 반편성(초급 중급, 고급)을 하여 수업을 진행함.

3. 특별활동

한국 고전무용, 서예, 태권도, 문화유적답사, 산업시찰 및 다양한 행사계획이 있음.

4. 등 록 비

1) 입학전형료 …… $ 37
2) 수업료(2과목 3과목) …… $686/$835
3) 기숙사비 …… $694
4) 교재대 …… $100
5) 보험료 …… $ 16
6) 수학여행비★ …… $328

(★는 선택사항을 나타냄)

5. 입학전형

1) 입학자격 :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고자 하는 모든 외국인과 해외동포로서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
2) 입학신청 : 입학원서, 입학전형료($37), 사진(4cm×5cm) 3매.
3) 입학원서 교부 및 신청
자세한 문의는 다음 주소로 할 것.

Seoul Campu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Office of Planning and Coordination
270 Imun-dong, Dongdaemun-gu
Seoul 130-791, Korea
Tel. (02) 963-7331 FAX. 02) 960-7838

Yongin Campu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International Summer School
89 Wangsan-ri Mohyun-myon Yong n-gun
Kyongki-do 449-791, Korea.
Tel. (0335) 33-1714 FAX. (0335) 33-1708

4) 입학신청 마감일 1990년 5월 20일

한국외국어대학교
韓國外國語大學校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